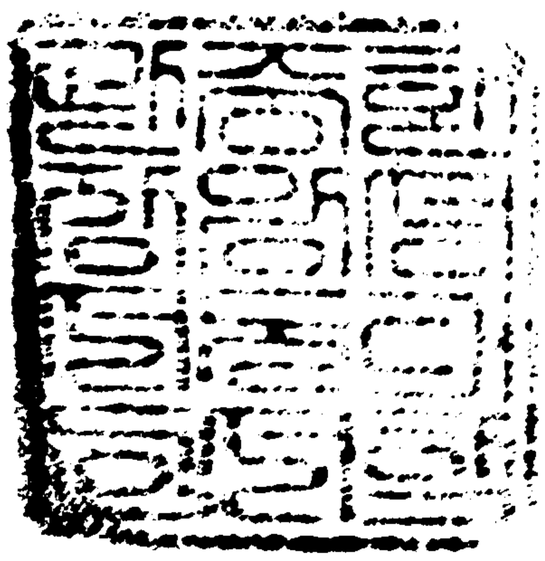
碩士學位論文

韓半島 周邊情勢와 韓國 安保에 관한 硏究



1992年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行 政 學 科

政 策 學 專 攻

金 才 坤

碩士 學位論文

指導敎授 鄭周澤

韓半島 周邊情勢와 韓國의 安保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Situation Surrounding Korean Peninsular and Security oF Korea >

1992年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政策學專攻

金 才 坤

碩士 學位論文

指導敎授 鄭 周 澤

韓半島 周邊情勢와 韓國의 安保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Situation Surrounding Korean Peninsular and Security of Korea >

위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 9 9 3 年 6 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行 政 學 科

政 策 學 專 攻

金 才 坤

金才坤의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3年 6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目　　次

第 1 章　序　　論

第1節　研究의 目的 ——— 1

第2節　研究의 方法과 範圍 ——— 3

第 2 章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情勢

第1節　國際情勢의 變化 ——— 4

1. 軍事的 冷戰 終熄 ——— 4
2. 新世界 秩序 推移 ——— 6
3. 新經濟 秩序 推移 ——— 8

第2節　周邊 4强의 政策 方向 ——— 11

1. 美國의 對外政策 과 韓半島 ——— 11
2. 日本의 政策方向 과 對韓半島政策 ——— 17
3. 中國의 外交政策과 對韓半島 政策 ——— 21
4. 獨立國家 聯合의 登場과 韓半島 ——— 24

第 3 章　韓國安保의 問題點

第1節　安保에 대한 認識 ——— 28

1. 安保의 定義 ——— 28
2. 國際 政治的 安全保障 維持 方法 ——— 31
3. 國防地理的 安保 現實 ——— 34

第2節 安保上의 問題點 ——— 39

1. 國內的 安保 威脅要因 ——— 39
2. 北韓의 威脅 ——— 54
3. 周邊國家들의 軍備增强 ——— 58

第 4 章 國家安保의 方向

第1節 國內現實의 安定化 對策 ——— 68

1. 政治的 安保와 民主主義 ——— 68
2. 經濟的 安保의 重要性과 對策 ——— 70
3. 社會·文化的 代案 ——— 76

第2節 專門職業 軍人의 倫理意識 提高 ——— 77

1. 軍人의 職業意識 ——— 77
2. 軍의 傳統的 倫理意識 ——— 79
3. 軍人의 倫理 ——— 81

第 5 章 結 論 ——— 84

參考資料 88

參考文獻 97

ABSTRACT 103

第1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우리는 最近 엄청난 世界史的 격변과 韓半島를 둘러싼 周邊國들의 情勢變化에 직면하고 있다. 20세기 동서 양진영간의 대립의 상징물인 베르린 장벽이 무너지는 등 世界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과 갈등을 마감하는 화해와 協力의 時代를 맞이하였고 共産圈의 개방과 民主改革, 특히 우리의 적극적인 北方政策 推進으로 이루어진 韓蘇修交 및 南北유엔 同時加入과 韓中修交 등의 情勢 推移는 韓半島 平和統一 환경조성에 일단은 긍정적인 作用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世界的인 平和, 和解, 協力의 무드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太平洋地域에선 여전히 軍備競爭에 몰두하고 있다. 最近 東北亞의 軍備動向을 보면 中國, 日本을 위시하여 인도,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北韓의 어느 나라에서도 軍備縮小의 기운은 發見되지 않고 있다. 특히 北韓에서는 核開發의 위협까지 고조시키고 있어 東北亞 지역은 世界的 탈냉전 軍備縮小政策에 역행하는 地域緊張을 더욱 高調시키고 있다.

베트남 캄랍만에서의 소련군 철수, 필리핀 駐屯 美軍基地 閉鎖등 힘의 공백이 나타나면서 아·태지역의 각국은 이러한 힘의 공백을 메우고 地域 覇權 確保의 우세를 점하기 위한 軍備競爭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이와같은 우리 安保狀況의 急激한 變化에도 불구하고 우리 國民들은 戰爭이 없다는 幻想에 젖어 종래 國家 安保上의 敵개념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現在의 安保狀況에 대해 지나친 樂觀論까지 提起하고 있는 實情이다. 우리는 舊韓末의 鎖國政策으로 인해 周邊國들의 동태에 어두

운 나머지 日本에게 과거 36년간 나라를 잃었던 뼈아픈 歷史的 事實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는 그 地政學的 特殊性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나라 보다도 周邊强國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우리는 우리의 地政學的 性格에 따른 周邊國들의 利害關係와 아울러 現 當面의 敵인 北韓의 意圖를 明白히 알고 이에 對備하는 " 知彼知己면 百戰 百勝"의 敎訓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現在 韓半島내에는 世界史上 유례없는 고밀도의 軍事力이 集中되어 있으며 周邊國 또한 막강한 軍事力을 保有한채 韓半島를 注視하고 있다. 아울러 北韓의 對南赤化戰略戰術이 포기되었다는 明白한 증거는 確認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北韓은 재래식 軍事力의 증강과 化學무기 生産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더군다나 核武器 開發을 獨自的으로 하고 있다는 事實을 감안할 때 우리의 安保는 결코 樂觀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明白히 認識하여야 할 것이다.

본 硏究는 政府의 統一政策 추구와 安保의 이중적 관계를 극복하고 自由民主主義 體制에 대한 확고한 守護信念을 바탕으로 하여 약화된 安保價値觀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우리의 周邊情勢 變化와 우리 內部現實을 正確히 認識하고 해이해져가는 安保意識을 强化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硏究의 目的이 있다.

第 2 節　研究方法과 範圍

本 論文은 文獻的 調査方法을 使用하였으며 時事性있는 것은 主要日間新聞과 國內外 學者들의 理論을 參照하였다.

본연구에서는 韓國社會現實의 객관적인 認識을 위하여 대내적인 차원과 대외적인 차원으로 分離하여 상황을 분석하여 보았다. 우선 對外的으로는 國際秩序에 대한 새로운 變化와 周邊의 정세변화 및 韓半島 周邊 4强의 政策展開의 過程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내적으로는 急速한 經濟成長과 激烈한 政治的 變化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社會的, 人間的인 問題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에 國家安保 沮害要因을 韓半島 周邊의 情勢變化와 국내의 만성적인 社會不安으로 보고 情勢變化를 注視키 위한 視覺의 國際化와 國內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軍事, 外交 등 전분야에 걸쳐 現實의 客觀的認識을 통하여 이의 解決策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安保 최후의 보루인 軍의 倫理的 使命感을 고취키 위해 職業軍人의 倫理意識提高와 더불어 國際社會의 냉엄한 現實에 대한 인식과 당면하고있는 北韓의 직접적인 南侵 威脅및 國內 左傾勢力의 表面化 등 내부적인 狀況 — 이러한 實情은 학원가 인공기 등장, 사노맹사건, 일부여성단체 국방비 삭감데모, 범민족대회 주장,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등 일련의 時局事態에 잘 나타나 있다 — 에 대한 올바른 認識과 이에대한 共感帶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에 硏究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第 2 章 韓半島 주변의 情勢變化

제 1 절 國際情勢의 變化

오늘날 세계는 동서 이데올로기 대립이 현저히 약화되어가는 반면 국가간의 경제적 生存權 鬪爭은 날이 갈수록 深化되고 있다. 지금의 國際情勢는 다음 몇가지의 構造的 特徵을 보이고 있다.

1. 軍事的 冷戰 終熄

美·蘇는 1979년 아프카니스탄 사태를 계기로 1987년 12월 레이건·고르바쵸프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적인 중거리 核戰力廢棄協定에 합의 함으로써 새로운 데탕트시대로 접어 들었다.

美·蘇가 1980년대 후반기에 대결구조에서 對話·協商時代로 바뀌게 된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核戰爭의 예방에 대한 共感이요. 둘째는 美·蘇가 안고 있는 심각한 經濟的 곤경이다. 특히 蘇聯은 브레즈네프 前서기장의 18년 집권기간에 GNP의 14%를 軍備에 투입했을뿐 아니라 제3세계에 대해서도 GNP의 1%를 투입하여 軍備過多支出을 해왔다. 거기에다 당 中央執權的 관료주의 체제가 갖는 構造的 모순으로 인한 非生産性으로 舊蘇聯 경제는 慢性的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한편 美國도 레이건 前大統領 재임초기 힘(國防力)을 바탕으로 한 對蘇强硬政策을 기조로 GNP의 6%를 군비에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비용의 소위 戰略防衛計劃(SDI)추진등 過多한 군비지출로 인해 심각해져 가는 국제수지 악화와 더불어 美國經濟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美·蘇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軍事的 대결시대에 終止符를 찍고 화해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그것이 바로 획기적인 段階的 軍縮의 길로 나가게 된 背景이다.

1989년 12월 고르바초프 前大統領과 부시 前大統領간의 『몰타회담』[1]은 美·蘇間의 軍事的 冷戰을 終熄시키고 새로운 協力時代를 열었다는데서 그 意義가 컸다.

고르바초프 前大統領은 페레스트로이카와 新思考외교정책 전개에 따라 앞으로 1995년까지 東歐뿐만 아니라 亞·太지역에서도 25만명에 대한 減軍政策으로 나가겠음을 公表하였고 美國도 1995년까지 세계모든 지역에서 전 군사력의 25%를 감축시킬 계획을 표방하였다.

이같은 군축을 통한 冷戰終熄 宣言은 먼저 유럽에서 이루어졌다 즉 파리에서 유럽安保協力會議(1990.11.19 ~ 21)가 개최되어 34개국 정상들이 재래식 무기 감축조약에 서명하면서 냉전의 종식과 적대관계해소를 선언했다. 유럽安保協力會議는 파리憲章을 채택, 자유로운 하나의 유럽으로 새출발을 선포했다.

한편 NATO와 WTO(바르샤바) 22개국은 政治宣言(1990.11.10)을 통해 평화와 다원적 민주주의의 價値觀을 선포하고 재래식 무기와 核 및 化學武器의 감축을 선언했다. 따라서 동서 冷戰體制는 먼저 유럽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동서 冷戰體制가 확실히 붕괴되는 과정에서도 지역분쟁의 돌발사태는 여전히 軍事的 緊張을 惹起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 실례로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다섯시간만에

---

1) 1989. 2. 2 ~ 3 몰타회담 합의 主議題는 軍縮 問題로써 核武器 廢止 및 減縮과 在來式 兵力縮小와 冷戰體制를 벗어난 協力體制의 宣言이었다.

武力으로 점령함으로써 軍事的 緊張을 惹起시킨 걸프전사태는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이 쿠웨이트 영토의 이라크로의 귀속과 아랍민족주의를 名分으로 내건 聖戰을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부시 美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

걸프전사태가 주는 教訓은 동서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美·蘇는 軍事的 대결을 回避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 3세계에 있어서의 地域紛爭은 쉽사리 終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美·蘇 兩國은 군사 대결 상황<표 - 3.4.5.6 참조>을 해소하기 위하여 戰略武器 減縮條約(START)에 조인 (1991.7.31) 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각각 일방적인 核武器 減縮을 宣言(美國은 1991.9.27, 蘇聯은 1991.10.5)함으로써 전면 核戰爭의 가능성을 줄이는 措置를 실질적으로 推進하고 있다. 재래식 戰力에 있어서는 이미 蘇聯은 東歐駐屯 戰力 撤收를 완료해가고 있으며 시베리아 地域 兵力도 거의 철수 시킨 단계이다 .[2)]

2 . 新世界 秩序推移

蘇聯帝國의 崩壞와 걸프전쟁의 결과로 인해 향후 전개될 세계질서는 10년 정도는 불완전한 美國中心의 單極體制(unipolar system)가 유지되다가 21세기에 진입하면서 美國中心型 多極體制로 변환되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때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先進國 간의 平和雰圍氣와는 대조적으로 지역내의 작은 국가들간의 紛爭, 지역 헤게모니 추구세력에 의한 軍事威脅, 核武器·化學武器·大量殺傷武器의 확산경쟁 등이 될 것이다. 또한 세계차

---

2)유재갑,"軍事情勢",(「世界安保情勢綜合分析」,國大院,安保問題研究所,1991), P.69.

원의 군축추세와는 정반대의 현상인 지역국가간의 軍備競爭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세계대전은 억제되는 가운데 소규모전쟁은 증가하는 상반된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 세계적 覇權國家는 美國, 獨逸, 日本, 中國, 약화된 蘇聯 등이 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東北亞는 전반적으로 볼 때 冷戰과 신데탕트가 共存하고 있다. 東北亞의 戰略環境을 결정짓는 요인들은 여러가지를 지적할 수 있지만 가장 위험한 요인은 南北韓간의 첨예한 軍事對決構圖가 된다. 北韓의 위험성은 지난날 韓國에 대한 테러(랭군테러, KAL 858기 격추 등)뿐만 아니라 地上軍事力의 3분의 2를 前線地域에 前進配置하여 南侵準備를 완료하고 있는 데다가 1990년대 중반이전에 核武器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데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駐韓美軍의 減縮計劃과 南北韓 경제력의 격차는 北韓 共産集團으로 하여금 무모한 冒險을 저지르게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처럼 南北韓간의 軍事對決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日本의 軍事大國化 움직임은 다른 지역에서의 화해와 軍縮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내의 軍備競爭과 緊張을 지속시키는 또다른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日本의 지속적인 軍事力 增强政策은 國際軍事秩序가 긴장되어 있을 때에는 문제시 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오늘날과 같은 신데탕트 狀況하에서는 그러한 동기나 의도에 대해 疑懼心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주변에 현존하는 軍事的 威脅勢力이 없고 어느정도 자신의 安保를 확보할 수 있을만큼 軍事力을 축적한 상황에서 日本이 지속적으로 軍事力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日本이 그러한 軍事力으로 과거와 같이 周邊에 影響力을 행사할 意圖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判斷을 가능케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日本이 주변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威脅의 對象이 되고 있지 않으나, 日本이 대규모의 軍事力

증강을 괴할 때 長期的으로는 日本의 軍事力 그 자체가 周邊國家들에게 威脅의 要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北韓共産集團의 무력 도발의 可能性이라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安保威脅에 對備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21세기를 對備하여 장래 가능할지도 모르는 日本의 威脅에 대해서도 항상 警戒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新經濟 秩序 推移

蘇聯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지난날의 경제질서, 즉 자본주의권 대 사회주의권의 兩分體制를 붕괴시켜으며 자본주의 경제권도 美國經濟의 상대적 하락과 유럽·日本의 경제세력화에 의해 經濟秩序의 다극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경제권은 오늘날 EC의 단일통화권 진전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권으로 양분될 전망이므로 지난날의 東西陣營間의 對決構圖가 유럽·아시아 경제권의 競爭構圖로 번환되어 21세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유럽경제의 지역화 움직임은 아시아 지역에 비교하여 보다 뚜렷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의 경우 獨逸의 통일과 더불어 급진전되고 있는 동구지역의 서구 편입에 따라 獨逸의 資本은 동독지역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전망이며, 西歐의 資本은 동구의 발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유럽은 지난날과 같이 美國과 연계된 경제체제로부터 독자적 유럽경제통합체로 발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외부의 經濟浸透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西歐 諸國은 동·서간의 교역촉진을 위해 특별계획을 추진해야만 할 것이며, 유럽지역경제의 변화가 進展된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권은 불가피하게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유럽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 경제권의 하나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이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日本, 韓國, 臺灣, 싱가폴, 홍콩 등 新興 産業國들과 아세안(ASEAN)등의 주도하에 중요한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이며, 정치·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經濟權을 형성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相互理解의 增進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이 하나의 經濟權域으로 발전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3]

현재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나 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가 EC에 대응할 만큼의 강한 구성체는 아니지만, 장차 하나의 政治的 結集體로 발전할 가능성은 농후하다.[4]

世界經濟秩序가 유럽 대 아·태 지역권으로 양분될 경우, 아시아 권역의 문화적 다양성이나 發展展望(資源,資本,技術能力)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북미권과 남미권이 아·태 권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보다 클 것이다.

蘇聯의 경우, 유럽과 아시아로 兩分되어 유럽권 영토의 개발은 유럽과 연계하고 시베리아 및 극동권 영토는 아시아 제국의 도움을 받는 양다리 걸치기식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美國은 양 경제권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유럽지역에서의 經濟利益은 축소될 것이다. 특히 美·蘇의 군사대결 구조가 사라지고 社會主義圈의 西歐編入化가 진행될수록 유럽-미국간의 經濟的 및 軍事的 이해는 소원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美國은

---

3) 김덕영, "世界經濟動向", (「世界安保情勢分析」, 國大院, 安保問題研究所, 1991), PP. 53 ~ 54.

4) 조선일보 1991. 10. 6일자.

日本과 더불어 아·태 경제권역의 중심세로 부상될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21세기에 진입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역적협력으로 域內關稅同盟을 맺고 서로간에 자국의 이익을 도모함에 따라 세계는 더욱 지역별 경제장벽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UR協商에서 보듯이 냉혹한 국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이것은 앞으로 自國利益우선의 多元的 經濟體制로의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 경제 역시 개도국들의 자원 및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經濟的 실리추구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우리는 이라크 사태의 다국적 연합군 파견을 통해 실감하고 있다.[5]

모든 나라에서 開放과 國際化가 가속화되고 國家간 競爭이 첨예화되고 있는 새로운 周邊環境속에서 우리나라도 經濟的 實利의 극대화를 통한 국가와 민족의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지혜를 모으고 지금까지 북한의 침략
을 가정하여 대비해온 安保觀을 중심으로 세계와 주변국들에 대한 軍事的 安保觀과 아울러 경제적 차원에서의 安保觀이 정립되어야 할것이다.

---

5) 김덕영, 前揭書, p.57.

第 2 節　韓半島周邊 4强의 政策方向

1. 美國의 對外政策 과 韓半島

가. 對外政策基調

傳統的으로 몬로독트린으로 이어온 美國의 對外政策은 다음 몇가지의 原則과 價値觀 그리고 道德性을 견지하려고 노력해왔다. 즉, 民主主義의 수호, 자유와 人權의 보호, 共産主義 팽창의 봉쇄및 세력균형의 유지, 核擴散禁止를 위한 노력 등이다. 그러나 地域國際政治에 있어서 美國 외교정책의 持續性과 信賴性이 자주 결여되어 온것도 사실이다.

레이건 行政府 당시에는 힘의 哲學 즉 美國의 强力한 國防力을 바탕으로 한 世界平和體制를 構築하겠다는 戰略을 追求했다. 따라서 美國은 對蘇戰略에 있어서 蘇聯의 제1攻擊에 대한 報復攻擊 能力을 保有함으로써 攻擊意志를 抑制하겠다는 從前의 槪念을 修正하여 처음으로 제 1攻擊을 無力化시켜 勝利의 機會를 주지 않겠다는 蘇聯 勝利를 거부하는 戰略 즉 確證生存, 相殺戰略을 확립했다.

이 戰略은 SDI(Strategic Defence Initiative)計劃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Star Wars의 硏究를 强化시킨 것이다. 專門家들은 SDI 防禦網을 完璧하게 構築하기 위하여는 5천억 ~ 1조달러의 經費가 소요되고 20년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대한 蘇聯의 立場은 宇宙武器 開發水準이 美國보다 뒤져 있고 國內에는 심각한 財政難으로 美國과 宇宙武器 競爭을 할수 없는 처지였다. 따라서 美國의 SDI計劃의 推進을 必死的으로 막아야했고 이에 따라 美國은 SDI推進을 留保하면서 蘇聯의 讓步 내지 妥協姿勢를 유도하여 世界

最强國으로써의 名譽와 自尊心을 回復하였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앞에서 示唆한 바와같이 軍備競爭의 意味가 喪失됐고 全世界的 次元의 軍縮이 불가피해졌다.

美國은 레이건 前行政府가 過度한 軍備支出을 비롯한 레이건노믹스 推進으로 對外 競爭力이 弱化되고 日本, EC, NICS(新興工業國)등의 世界貿易市場 進出등으로 美國經濟는 深刻한 財政難에 直面해 있는 것이다.

蘇聯문제 전문가인 조지 케난 교수는 워싱턴의 한 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1990.6) '蘇聯은 더이상 美國의 敵國이 아니다. 美國과 美國國民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이제는 군사적위협이 아니라 경제적 위협' 이라고 갈파했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날 美國에 대한 최대의 경제적 위협국은 日本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매년 日本에게 5백억달러에 이르는 적자누증으로 심각한 貿易不均衡을 초래하고 있는 美國은 이제 그 최후의 카드로 현재 日本의 수출형 산업구조를 內需主導型으로 전환시키려는 國家戰略으로 나가고 있다. 미일구조 조정협의회의 타결결과 (1990년 6월 28일) 또한 1992년 1월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부시 미 대통령은 日本 방문중 게파트案(日本이 5년간 대미무역흑자를 매년 20%씩 줄이지 않을 경우, 일제차의 美國販賣制限)의 美의회 통과를 우려 日本 스스로 對美輸出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나. 亞·太戰略과 對韓半島 政策

(1) 亞·太 戰略의 基調

美國의 세계전략은 對蘇戰略의 차원에서 고려되고 그 우선순위는 ①대소

핵전략 ②유럽 및 NATO방위문제 ③중동방위 ④아·태 지역방위 順으로 놓았던 것[6]이 종래의 觀點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바뀌었다고 할수있다. 東北아시아地域에 대한 關心과 戰略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①戰後 주요군사적 대결과 紛爭이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②4강의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지역이고 ③舊蘇聯, 中國의 막강한 軍事力이 배치되어 있고 특히 舊蘇聯이 아·태지역 진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日本 역시 經濟力을 배경으로 軍事大國化할 잠재력을 과시하고 있는 점과 ④아시아·태평양시대의 開幕과 아울러 이지역이 世界의 政治, 經濟의 中心部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부시 前 美大統領은 1989년 12월 고르바초프와 가진 몰타회담에서 '몰타의 정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協力時代"를 선언했는데 그것이 冷戰構造의 청산을 의미한다면 美國의 아·태전략도 安保위주에서 긴장완화, 경제중시로 전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2) 韓半島 政策의 基調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을 豫測하려면 우선 美國이 韓半島 특히 南韓에서 가지고 있는 利益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美國이 韓國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利益은 우선 먼저 政治的 影響力을 定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7]

---

6) 統一院, "周邊主要國의 政策方向과 韓半島".(「民主統一論」 1991). PP. 290.

7)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10. 1985. P.24.

美國은 1866年 해적선 제너럴 셔먼호의 피습을 기화로 1871년 소위 辛未洋擾를 일으킴으로써 우리와의 侵略的 첫만남을 가진 이후 中國이나 日本처럼 韓半島 問題에 깊숙히 개입하지 않았으나 宣教活動이나 通商을 위주로한 미미한 관계를 지속하다 2차대전이 종료되고 解放과 아울러 軍政을 실시하였고 6.25참전과 아울러 戰後 復舊援助, 安全保障支援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韓半島 문제에 매우 깊숙히 관계하여 北韓으로부터 "第1의 對外公的"으로 규정될 만큼 우리와 密着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美國의 政治的 影響力이 韓國內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韓國內의 政治勢力은 美國을 무시한 國策을 구상하지 않으며 거의 모든 國民은 親美的인 성향을 넘어 從屬的인 관계에 이르고 있어 韓國民들은 反美的인 行爲 자체가 非愛國的인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美國은 이러한 政治的 影響力을 基盤으로 하여 經濟와 文化에 있어서 수많은 利益을 形成시키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美國的인 思考와 生活 등의 文化的 影響을 상당히 큰 意味를 지니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日本이 經濟力을 바탕으로 한 급속한 國際的인 地位 上昇으로 또다시 韓國內에 政治的 進出을 노리고 있으므로 이를 牽制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日本은 韓國內에 經濟的으로는 크게 進出하여 있다. 그리고 日本의 歷史, 文化, 地理, 人種 등 제반 여건으로 볼때 美國보다 韓半島 進出이 용이하다. 이러한 日本이 韓國과의 經濟的 協力을 바탕으로 관계가 密着되고 있는데 그것이 政治協力으로 발전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日本의 韓國進出을 牽制하는것과 日本의 進出을 막기위한 方策이 講究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美國이 韓國과 관련된 두번째 利益은 蘇聯과 中國 및 日本을 동시에 牽制

하고 있다는 것이다.[8]

美國이 政策을 構想함에 있어 크게 염두에 두는 주 相對國은 언제나 蘇聯과 中國이었다. 이 두나라는 美國의 잠재적인 假想敵國 으로써 강력한 軍事力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 두 大陸勢力(특히 蘇聯)이 海洋으로 진출을 한다면 美國으로써는 緩衝地帶 없이 그들과 직접 衝突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두 競爭者를 牽制할 발판인 韓半島가 緩衝地帶로써 韓國의 存立이 필요한것이다.

만약에 韓國이 存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美國은 東西에서 中國과 蘇聯을 牽制 하는데 매우 어려운 처지 놓였을 것이다. 그리고 韓半島의 赤化는 大陸勢力化를 意味하며 이는 東北亞 勢力均衡을 근본적으로 깨뜨려 日本이 큰 威脅속에 놓이게 되며 이는 日本이 軍事大國化 政策의 推進 및 核 武裝化를 막을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때 東北亞 힘의 균형 유지와 日本을 보호하는 防壁으로써 韓國은 중요한 위치이다. 이러한 軍事的 側面에서 美國이 韓半島가 赤化된뒤 蘇聯과 中國을 牽制하려면 보다 더 강력한 태평양함대의 증가 배치 및 강한 항공력과 핵 잠수함의 증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태평양상의 軍事力을 증가시키더라도 韓半島에서 牽制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것이다.

지금현재 蘇聯이 소멸하고 獨立國家聯合이 등장하여 國際的으로 美國에 대적하는 힘이 약해지긴 하였지만 舊蘇聯의 극동지역 軍事力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러시아가 南進政策을 撤回 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인데도 美國은 軍備縮小와 아울러 韓國의 方位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

8) 前揭書, P.24.

(3) 韓半島政策

戰後 미·소냉전 양극체제하에서 韓美간은 지금까지 傳統的 友邦國家로서 견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韓半島의 분단으로부터 한국전쟁, 전후복구사업의 원조, 한국군의 越南派兵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발전 그리고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이르기 까지 韓國과 美國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였으며 단순한 선린의 관계를 넘은 강력한 同盟國의 관계였다.

미국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對蘇前哨基地로서의 韓國이 美國의 死活的 利害地域임을 認識하여 안보 전략적 위치를 중시했다. 미국정부는 각 圈域別로 주요도를 설명함에 있어 상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勢力圈에 대해서는 死活的重要(Vitally Important),利害圈(Sphere to Interest)에는 重要(Important),그리고 그밖의 권역에 대해서는 我國의 利害(In our Interest)라고 기술하고 있다. 美國의 安保에 緊要(Essential)한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러한 지역으로 東歐, 日本과 韓國이 포함되고 있다.

美國의 對韓정책방향은 ①한국의 安定과 安保의 지원, 협력 ②民主主義와 自由에 대한 공약 ③번영하는 相互貿易관계의 배양 등에 기본을 두고 있다.[9] 그렇지만 韓國의 美國과 사전의 충분한 협조를 거치지 않은 적극적인 北方政策展開와 국내의 일부세력의 反美性向强化와 아울러 美國내 經濟的 여건의 악화에서 연유되는 통상마찰 등이 양국의 우호관계에 갈등요인으로 작용,양국간의 관계가 점차 소원해져 가고 있다.

---

9) 統一院, 前揭書, p.291.

美國은 韓國을 第2의 日本으로 간주, 美·日構造調整協議會의 다음 목표가 한국이 될 우려마져 보인다. 이러한 통상마찰은 1990년에 들어와 美國의 무차별 공세로 11월 15일 방한한 솔로몬 美國防省 아·태 차관보는 우리의 과소비억제운동, 농수산물 개방반대 운동 등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金融, 通信, 知的所有權, 외국인 투자 등 韓美간 통상현안에 대한 한국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하였고, 또한 그레그 주한 美대사도 한국외교협회 초청 연설에서 英國의 정치가 팔머스톤경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國際情勢는 영원한 友邦도 영원한 敵도 없다 오직 國家間에는 영원한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며 이말은 韓美間에도 적용된다는 냉혹한 말을 했다.[10]

한편, 지난 1990년 제2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합의(한미안보공약을 재확인하면서 韓國의 신장된 經濟力을 바탕으로 주한 美軍維持費用의 한국측 부담액을 상당부분 증액 하는 대신 양국 군사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主權行使를 확대하기로 하였음)로 한미간의 安保關係가 依存關係에서 對等關係로 변화하였다. 이것은 바로 自主國防을 위한 중간단계로써 주한미군철수와 함께 이러한 美國의 소극책은 韓半島 平和와 韓國의 安保에 다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과 아울러 이제 安保에 관한 모든 問題는 우리 자신이 해결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2. 日本의 政策方向과 對韓半島政策

가. 政策基調와 趨勢

10) 세계일보 1990. 11. 21일자

2차 세계대전의 戰犯國家이며 敗戰國인 日本은 폐허에서 벗어나 1970年代에 와서 세계속의 '經濟大國'으로 성장했고, 1980年代에 와서는 經濟大國을 바탕으로 '政治大國'으로 부상하는데 주력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경제대국, 정치대국과 더불어 점차 '軍事大國化'하는 추세에 있다.

日本 對外政策의 基調는 美·日安保協力體制下에 '全方位外交'를 표방하고 있다. 즉 "특정방침이 없는 것이 외교방침"이라는 말과 같이 어느 나라와도 등을 지고 살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朝日新聞은 1988년 8월에

"이제 日本은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펼 때가 되었다."고 했고, 1988년 11월 다케시다 前총리는 "世界에 貢獻하는 日本"을 표방했는데, 이는 政治·軍事的 차원의 역할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된다.

나카소네 前총리는 1983년 1월 당시만 해도 美·日 양국이 '共同運命體關係'임을 강조한 바 있으나, 日本이 美國의 經濟力을 추월함에 따라 美·日 통상마찰이 일면서 獨自的, 自主的 방향이 더 커지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의 核우산 밑에서 安保無賃乘車(Free Rider)에 힘입어 경제건설에만 매진한 日本은 美國이 아시아지역에서 影響力이 쇠퇴해질 것에 對備, 美國의 역할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日本은 극동, 동남아문제에 관한 한 유엔을 비롯한 어디에서나 政治的 主導權을 잡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이 뚜렷하다.

日本은 歷史的으로 시대마다 그 시대를 특정짓는 국수주의자들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세기에는 모토오리 노리나카의 '日本文化中心論', 19세기에는 요시다 쇼오잉의 '富國强兵擴張主義論', 다루이 도키치의 '大同合邦論', 20세기에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脫亞論' 등이 그것이다.[11]

---

11) 統一院, "韓半島 周邊政勢와 統一環境"(「民主統一論」, 1989), P.154.

한편 日本史의 일관된 목표는 日本民族의 우월의식을 바탕으로한 아시아의 제패였다. 도쿠가와 막부 말기에는 '아시아連帶論', 明治시대에는 '大아시아主義', 昭和시대에는 '東西聯盟-大東亞共榮圈'을 내세웠다. 日本이 蘇聯을 의식하면서도 亞·太 지역에서 影響力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정부개발원조(ODA)를 19988~1992년 기간중 500억 달러 규모를 상정하고 있는데, 그 70%는 아시아 국가에 원조하겠다는 데서도 이러한 시도를 엿볼 수 있다. 토론토 서방 7개국 정상회담직전인 1988년 6월 다케시다 前총리는 중국, 태국, 싱가폴을 방문하여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들 국가의 이익을 대변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日本이 NICS의 경제적 권익을 옹호하고 있다는 제스처라 하겠다. 또 日本은 1987년 12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 6개국 정상회담에 업저버로 참여하는 積極性을 보이기도 했다.[12]

아시아에서의 日本의 정치외교적 주도권은 캄푸치아 내분 뿐만 아니라 카슈미르紛爭, 中國·臺灣관계 및 南北關係에 대해서도 조정역할을 하려는 자세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런 역할을 일본자신은 '貢獻'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다른 國家들은 日本의 '주도적 겨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나.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

地政學的 位置(邊境國, 橋梁國, 緩衝國, 中心國)에서 볼때, 日本과 韓半島는 一衣帶水를 끼고 있는 관계로서, 서로의 安定과 平和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

12) 統一院, 前揭書, P.156.

그러나 불행하게도 被植民統治의 유산을 안고 있는 韓半島는 역사적 감정 속에서 그후 모든 平和와 安全問題 그리고 國益(특히 經濟)과 관련하여서는 日本과 葛藤關係에 놓여 있었다.

戰後 日本의 韓半島政策은 美·蘇兩極體制 속에서 美國의 對韓半島政策의 맥락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日本이 經濟大國化함에 따라 정치적·외교적 역할을 현저히 증대시키면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의 韓半島問題 논의에 主導權을 가지려는 속셈을 나타내곤 하였다. 1965년 韓·日 국교정상화 이후 日本은 美國의 對韓政策의 맥락속에서 親韓政策을 유지하면서 政經分離原則下에 對南北韓 등거리외교를 해 왔던 것이다. 親美 자유세계의 일원인 日本은 韓半島의 공산화가 日本에 威脅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地政學的 位置와 더불어 韓國의 安保가 日本의 安全에 중요하다고 認識하고 있다. 따라서 韓·日相互 共存의 協力을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해결해야만 한다. 첫째는 보다 명확한 植民統治의 청산문제이며, 둘째는 재일교포의 法的地位問題가 해결되어야 하고, 셋째는 韓·日간의 심각한 貿易不均衡의 시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日本의 기술이전을 크게 기대해 왔으나, 日本은 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日本이 자기나라의 國家進路를 海外膨脹쪽으로 바꾸고 아시아의 지역적통합에 지도력을 발휘하기로 方向轉換을 하는데 유엔의 캄보디아 평화유지활동을 억지로 이용하고 있고 또한 아시아에서 日本 自衛隊의 파병후보 지역으로 ①캄보디아 ②미얀마 ③카슈미르 ④한국을 들고 있다.[13]

이것은 그들이 추구하고 指導力을 발휘해야 한다고 한 아시아의 지역적 통합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대상에 韓半島를 자의로 포함시키고 있음은

---

13) 신용하, "日本의 PKO協力法과 新軍國主義"(「韓國人」 92.8.),P. 33.

명백한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볼때 日本의 PKO협력법 공포와 자위대 해외 파병을 전기로한 日本의 대한반도 및 아시아 정책은 바로 ①아시아의 覇權 掌握, 日本圈 設置政策 ②韓半島의 分割과 統制(Divide and Control)政策으로써 從屬化라고 볼 수 있다. 이는 日本이 지금 엄청난 규모의 최첨단 장비로 군비를 증강하고 있고 아울러 核武裝準備[14]를 하고 있는데서 美國이 아시아에서 철수하고나면 인접국가들을 日本의 軍事的 保護國으로 만들어 반독립 종속국 형태로 유지시키면서 각부문별로 종속화시킨다는 것이다.

3. 中國의 外交政策과 對韓半島政策

가. 對韓半島 政策基調

中國은 북경 정부수립의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韓國戰爭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北韓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北韓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이유는 美·蘇兩極 體制하의 극심한 대립속에서 對外政策 決定은 이데올로기 요인이 핵심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주의 공동목표인 美國을 제 1의 적대국으로 선포, 韓國은 美國과 相互防衛條約을 맺고있는 美帝國主義의 전초기지로 간주되었고 北韓은 미국세력으로부터 社會主義를 보호하기 위한 戰略的인 緩衝基地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

14) 현재 년간 210톤의 핵처리 시설보유,1999년까지 년간 800톤의 처리능력을가진 핵처리시설 착수 및 플로토늄 수입

또한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中國의 전통적인 對韓半島政策[15]은 지정학적인 주변 환경요인에 그 基調를 두고 있음을 알수 있다. 脣亡齒寒, 脣齒相依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淸나라때부터 淸朝從屬關係(국제법상의 관계가 아닌)라하여 한반도는 中國의 庭園이니 하는 의식적 관념이 있어 왔다.

따라서 中國은 계속적으로 北韓을 자신의 영향권 안에 보호하면서 다른나라의 지배권에 들어가지 못하게하고 있다. 이에따라 北韓과는 한국전쟁시 의용군 파견, 1961년 相互防衛條約締結등 社會主義 兄弟國, 血盟關係, 脣齒關係를 유지해온 반면에 韓國과의 관계개선은 배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경제적 요인이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서 對韓半島政策의 중요한 基調로써 작용하여 實用主義를 취하고 있다. 中國은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타의 국내외 요인들을 희생시킬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中國의 對韓半島政策의 變化

中國은 2050년까지의 사회주의 현대화건설 달성을 우선 목표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변환경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中國은 韓半島에서의 전쟁방지와 긴장완화에 대해서 보다더 중요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中國은 외부세계에 대한 友敵의 판단기준은 혁명적 동질성의 여부가 아니라 경제발전에 어느정도의 도움을 주는가에 초점을 맞춘 실용성으

---

15) 韓榮春외 3명, 韓·中時代의 開幕과韓國의 未來(自由評論社 1993), P.43.

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러한 논점에서 北韓에 치우친 中國의 對韓半島政策은 재고되었고 그결과 그들보다 월씬 앞서 경제발전을 경험한 韓國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은 당연한 歸結이었다고 할수 있다.[16]

그래서 현재 中國이 韓半島에 적용하려는 정책의 기본은 먼저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유지한 다음 韓國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실리를 최대화 하겠다는 것으로 압축될수 있다.

그리고 中國은 韓國이 어떤형태로 統一하든 진정으로 이를 바라고 있지 않다. 그이유는 韓國이 統一된 모습으로 커지면 현재 동북아시아의 國際的 구조도 韓國에 유리한 형태로 달라져야하며 더욱이 中國은 이같이 달라진 韓國을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비추어 본다면 韓半島에 대한 中國의 장기적인 전략은 역시 統一보다 分斷쪽에 무게 중심이 실려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단기적인 戰術은 그와는 달리 우리와의 友好的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거듭 말한대로 中國이 당면한 現代化 필요성 때문이다. 즉 韓半島를 비롯한 周邊國들의 평화유지가 中國의 현대화에 전념할 安定된 시간적여유를 가지기 편리하고 韓國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나라로부터 友好的인 협조와 지원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中國이 예전같지 않게 韓國에 대한 友好政策을 펴면서 北韓을 설득하는등 韓半島 平和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中國은 평화시에 戰爭에 對備하라는 格言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겉으로는 軍備縮小를 단행하면서도 실질적인 戰力增强을 꾀하고 있고 세

---

16) 한영춘외3명, 前揭書, P.210.

계 각국에 불안을 증대시키면서 武器와 武器生産 技術을 輸出하고 있다.[17] 따라서 우리의 北方政策 促進의 결과가 만일 中國이 지역내 패권국가가 되는 것을 돕는것이 된다면 그것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여야 할것이다.

4. 獨立國家聯合(CIS)의 登場과 韓半島

蘇聯의 종래 韓半島政策은 北韓과의 동맹관계에서 北韓의 제반정책을 지지·지원해 왔으나 고르바초프 등장이후 신사고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추진 및 민주화정책등으로 對南北 등거리 政策으로 전환을 시작한이래 우리의 적극적인 北方政策과 蘇聯의 신사고 政策의 만남이 韓·蘇 정상회담, 韓·蘇 수교등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蘇聯·北韓관계가 불편해 졌다.

1991년 8월 19일에 발생한 쿠테타는 3日天下로 끝났고(당시 고르바초프 大統領은 聯邦과 共産黨은 존속할 것으로 보았으나 蘇聯狀況은 예기치 못한 급변을 가져와 1991년 8월 24일 고르바초프는 共産黨書記長을 사임하고 12월 25일에는 大統領職을 사임하게 됨에따라 소연방은 사실상 68년만에 붕괴됨) 獨立國家聯合(발트 3국 및 그루지아공화국을 제외한 11개 공화국으로 구성됨)시대로 전환 하였다. 소연방의 崩壞는 마르스크·레닌 주의의 崩壞를 의미하며 共産主義 이데올로기의 결정적 쇠퇴를 가져왔다고 말할수 있겠다.

그러나 共産主義 체제를 崩壞한 獨立國家聯合은 두가지의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바로 資本主義 市場 經濟原理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는 진통과

---

17) 柳炳賢·로버트 세네왈드, "脫冷戰時代의 東北亞 地域 安保·協力의 本質 變化"(「自由」:1993. 4월호), P.39.

核문제 처리과정에서 오는 진통이다. 그중 安保와 관련하여 核처리 과정의 문제를 살펴보면 蘇聯에는 약 2만7천발의 核탄두가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核무기의 발사버튼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고 부가적으로 核저장시설관리, 核관련 과학기술자들 처우문제 등이 있겠다.

옐친 러시아연방 大統領은 核武器 버튼은 오직 하나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러시아연방만이 갖는다고 하였으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4개 공화국은 공동 核통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資本主義 市場原理의 추진과정에서 각공화국간의 利己主義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식량난 등이 겹쳐 물가는 급상승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不正腐敗와 不條理가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舊蘇聯의 核관련 과학기술자들이 보다 나은 생활 보장을 약속 받고 北韓및 제3국으로 대거 입국하여 활동[18]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北韓 金日成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核武器를 舊蘇聯의 核貯藏施設의 管理者들과 부정한 방법으로 결탁하여 손쉽게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소연방 崩壞후의 獨立國家聯合은 앞으로 3~5년간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국내문제로 인하여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관여는 유보적 입장을 취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을 主軸으로하는 CIS는 舊蘇聯의 國際的位置를 그대로 維持하기 위해 우세한 그들의 軍事力을 바탕으로 약소국(특히 태평양지역국)에게 직.간접적인 影響力을 행사하려들 것이다.

CIS를 주도하는 러시아는 舊蘇聯 영토의 3분의 2, 인구의 60%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시베리아의 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이러한 러시아 공화국의 大統領에 보리스 옐친이 역사상 처음으로 直選制를 통해 당선, 취임(1991. 6. 13)했다. 따라서 소연방의 崩壞와 러시아 연방의 등장으로 우리의 北方

---

18) 國防日報, 1993. 3. 18일자.

政策에 혼돈이 생겼고 國家安保측면에서 강력한 소연방보다는 소공화국의 등장이 우리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北韓에게는 불리하게 작용(이것은 대 소비에트 연방이 그동안 北韓의 배후세력으로 保護國家 작용을 강력히 해왔으나 이것이 消滅되므로써 北韓의 강력한 배경이 없어졌기 때문)함을 뜻한다. 따라서 北韓은 그러한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강력한 힘을 찾아야 한다는 것과 관련, 자체 生存手段으로써 自衛權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核武器 개발을 더욱 서두르고 있으며 이것이 결정적으로 韓半島 安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日本등을 자극시키고 있어 亞·太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周邊强國의 政策方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美國은 자국의 經濟回復을 위해 軍備縮小를 단행, 國防費 삭감을 위해 아.태 지역에서의 기지 철수 및 병력 감축을 단행하고 있으며 韓國防衛를 위한 安保의 짐을 우리에게 떠맡기려고 하고 있고 아울러서 통상마찰, 農·畜·水産物 開放 壓力등 경제적인 마찰이 더욱 심각 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日本은 지정학적인 견지에서 韓國을 가상 敵國化할 태세이고 아시아의 主導權을 겨냥하여 인접국가들을 軍事的 保護國化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軍事的 從屬化는 물론 각부분별로 從屬化 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中國은 사회주의 현대화건설 추진과 우리의 北方政策과 맞물려 우리와 수교를맺는등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결국 中國이 추구하는 것은 아·태지역의 覇權確保을 위한것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北韓은 蘇聯의 소멸로 인하여 그들이 지지하던 강력한 배후가 사라짐에 대한 불안감으로 自體生存 手段과 自衛權 確保側面에서 核武器 개발

에 집착하고 있고 새로이 등장한 獨立國家聯合은 구소련의 國際的 位置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세한 軍事力을 바탕으로 직,간접적인 영향력의 행사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요소가 우리 韓國의 安保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第 3 章 韓國 安保의 問題點

第 1 節 安保에 대한 認識

1. 安保의 定義

國家安全保障 (National Security)란 말은 라틴語의 Securitas에서 연유하며 이는 걱정, 근심, 불안이 없는 國家의 상태라고 規定할수 있다.

이것은 各國家들이 自國의 平和와 安全을 달성하기 위한 槪念으로 國際舞臺에서 사용하는 用語로써 힘의 論理가 지배하는 國際社會에서 國家의 生存과 價値體系의 보존, 國家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國際性, 對外指向性, 軍事性의 속성이 강한 槪念[19]이다.

우리가 흔히 安全保障이라하면 흔히 외부의 侵略에 대항하여 國家를 保存하는 것으로 연상하는 것도 바로 이런 緣由에서이다. 즉 國際性 對外指向性이라는 것이 위협이 근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경우이고 軍事性이란 安保의 手段이 軍事力에 依存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단국으로써 內外의 복잡한 문제(강대국 간섭, 공산주의 도전, 체제전복 세력의 위협에 따른 사회적 폭력의 증대 등)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에따라 군사적 속성은 강화되어 왔다.現代社會로 올수록 軍事力 사용에 대한 關心은 이제 國家의 防衛, 전쟁억제 및 강압의 수단 혹은 外交政策의 補助手段으로 사용되지만 이러한 對外的 속성 이외에 內部의 治安維持, 폭

---

19) 崔慶落외 2명, 「國家安全保障序論」,(서울:法文社. 1989), P. 5.

력세력의 진압등 內部 지향의 속성은 여전하다.[20]

우리나라에는 國家安保(National Security), 國防(National Defence), 防衛(Defence)가 혼용되고 있으나 이것은 2차대전 이후 日本을 거쳐 들어온 이유에 인한 개념의 혼란으로 보인다. 그러나 國家安保는 國防과 防衛보다 더욱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으며 國防, 防衛가 주로 軍事的 側面을 강조한것에 비해 安保의 개념은 좀 더 포괄적이라 할수 있다.[21] 이러한 개념은 목적의 차원과 수단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다.

國家安保나 國防 또는 防衛가 다같이 國家利益(National Interest)과 國家目標(National Objectives)를 구현하기 위한 전반적이고 계속적인 理論定向性目的을 가지고 있지만 國家安保는 國利民福이나 富國强兵 또는 國泰民安과 같은 포괄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고 國防은 國家의 平和, 安全 그리고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지향하며 防衛는 武力戰의 승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한 行動定向的手段인 國家政策과 國家公約(National Commitment)을 실현하기 위해서나 침략을 배제 또는 저지하기 위한 처방으로써 國力을 뜻하는 것이다.[22]

國家安保는 "軍事 非軍事에 걸친 國內外로부터 起因하는 各種 各樣의 威脅으로부터 國家目標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추구하는 諸政策體系를 綜合的으로 운용함으로써 旣存의 威脅을 효과적으로 排除하고 일어날수 있는 威脅의

---

20) J.Lider., *Military Theory : Concept Structure. Problems*(London : Gower Publishing 1983),PP. 24 ~ 29.

21) 李善浩, "國際環境 變化와 韓半島 平和統一"(「國家安保戰略論」,서울:博友堂, 1990), PP. 29 ~ 31.

22) 李善浩, 「國防行政論」,(高麗苑, 1986), PP. 8 ~ 9.

발생을 未然에 방지하면 나아가 不時의 事態에 적절히 對應하는것" 이라고 말할수 있겠다.[23]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軍事的 側面 뿐만아니라 다른 諸般要素가 安保의 對象일수도 있다는 것은 국가내의 모든역량을 결집하여 국가 내·외부에 威脅이 될수 있는 것은 安保的側面에서 고려되어져야 하며 그 威脅의 强度가 심각할수록 그에 따른 對應노력이 더욱 배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威脅이란 말에는 겁주거나 공갈 치는 뜻으로 脅迫 등과 같은 能動的인 면과 벌벌 떨거나 하는 受動的인 면이 있으며 恐怖感을 주거나 恐怖感을 느끼는 측에서 認識되는 두가지 側面을 고려할수 있다. 특히 威脅을 느끼는 측에서 相對方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重要하며 이러한 이미지가 제대로 相對方에게 전달되고 또 느끼는 측에서 올바르게 인식하였을 경우 그 갭이 줄어들어 威脅를 느끼는 측에서 이에 대응 할수 있게 되나 그렇지 않을경우 치명적 결과를 입을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24]

따라서 威脅에 대한 건전한 판단은 安保政策에 중요하게 적용될수 있으며 한 국가가 어떤일을 추진하면 상대방 혹은 인접국가에서는 그것이 어느정도 威脅이 되는 것인지 고려하여야 한다. 北韓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및 核武器를 새롭게 개발, 배치하였을 경우 당연히 韓國은 이것이 어떤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韓國의 安保에 대한 威脅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對備를 하여야 할 것이다.

---

23 崔慶落외 2명,「國家安全保障 序論」,(서울:法文社, 1989),PP.25 ~ 26.

24) 羅炳善, " 韓國의 安保政策 方向에 관한 硏究", (漢陽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1990), P. 7.

2. 國際政治的 安全保障 維持方法

한 國家의 生存을 위해서는 君主는 때론 여우가 되고 때로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자는 陷穽(trap)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 할 수 없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방어할수 없기 때문이다. 陷穽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며 늑대를 威嚇하기 위해서는 힘센 사자가 되어야 한다[25]라고 마키아벨리는 플로렌스 都市國家 君主에게 忠告한 바 있다. 이와같은 忠告는 아직도 우리같은 弱小國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弱小國과 强大國은 같은 國際社會를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原理는 같을 수 없다. 强大國은 自國의 國力이 곧 安全을 保障하는 裝置이므로 特別한 政策이 없더라도 적어도 生存의 威脅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弱小國은 生存, 나아가서는 自主性 確保 및 體制 維持를 위해서는 國際政治 등의 變化 樣相에 적응해가는 機敏한 政策 혹은 적은 힘으로 강대한 國家의 威脅을 벗어날 수 있는 戰略을 가져야 한다. 普遍的 政治秩序가 確立되어 있지 않은 國際政治社會에서는 自力救濟와 그 변형으로서의 集團防衛(Collective Self-Defense)만이 한 국가의 安全을 保障한다. 즉 國際社會는 法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에 의해서 秩序가 維持되고 있는 것이다.

힘의 秩序는, 强大國에게는 아주 有利하고 弱小國에게는 아주 不利한 秩序이다. 강대국은 自國이 원하는 國家關係를 設定하고 維持할수 있으며 이를 직접 힘으로 강행할수 있는 반면, 약소국은 강대국의 施惠에 依存하여 安全을 保障받을수 있게 되어있다.

---

25) Machiavelli, *The Prince*, Modern Library Edition , P. 64. 林明芳譯, 「君主論」, (서울 : 삼성출판사, 1976), P. 23.

현재 약소국들이 獨立을 維持하며 平和秩序속에서 自主權을 行事 할수있는 것은 강대국들이 자국이 有利한 地位를 확보하고 있는 現存秩序를 安定시켜 維持하려하는 努力의 反射的 結果 때문이지 國際政治秩序에 의한 制度的 保障으로 가능해진것이 아니다. 현재의 權力政治秩序는 강대국의 視覺에서 보면 비교적 安定된 平和秩序이나 약소국의 視覺에서 보면 不安과 恐怖의 不安定秩序인 것이다.[26] 한국가가 對外關係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國家目標는 自主性(independency)의 維持이다. 自主性이란 他國의 간섭없이 自國의 對外關係를 統制할수 있는 國家의 地位를 말한다.[27]

다시말해 어느 강대국도 완전한 自主性을 維持하고 있다고는 할수없다. 美國의 경우 세기의 초강대국으로 君臨하고 있지만 Gulliver가 Pigmy族들에 의해 꽁꽁 묶여서 자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美國의 의사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28] 따라서 自主性은 엄격한 해석에서 보다는 정도의차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사용할때 더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다.[29] 약소국이 타국의 간섭에 屈服하지 않기위해서 拒否能力(denial capability)를 갖추어야 하는데 약소국의 경우 자체 군사력만으로 강대한 국가들의 영

---

26) 李相禹, "弱小國의 防衛能力과 고슴도치理論",(「國際政治學 論叢」, 韓國國際政治學會編, 1976), PP. 131 ~ 132.

27) Annette B. Fox, *Small State Diplomacy* (Notre Dame Universty, 1972), P. 339.

28) S, Hottmann, *Gullivers Traval*, (N . Y : Mcgraw - Hill, 1968), PP. 11 ~ 21.

29) M.R Singer, *Weak States in a World of Powers*, (N.Y : The Free press 1972), P. 36.

항력을 排除하고 독자적 자주성을 확보할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음 5가지의 방법에 의하고 있다.[30]

첫째 특정강대국과의 相互防衛條約을 체결하여 同盟關係를 맺는 방법이다. 이경우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관계는 일종의 上下關係가 되어 弱小國의 입장에서는 큰이익을 위해 자국의 自主性의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간의 條約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일국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파괴할수 있는 단한장의 종이조각과 같은 야누스(Janus)적 兩面性을 띠고있는 것이므로 유동적인 國際社會에서는 實效性이 없는 것이다.

둘째 以夷制夷의 방법이다. 이는 强大國간의 利害를 잘 이용하여 약소국을 둘러싸고 있는 强大國들끼리 서로 牽制토록 하는 방법이다. 强大國들간의 利害關係가 상호 불일치할 경우 성공적일수 있으나 이해가 相反된다 할지라도 高度의 外交能力을 필요로 하는 방법이다.

셋째 弱小國끼리 地理的으로 隣接해있거나 입장이 비슷한 국가끼리 集團的으로 활동하는 방법이다. 集團防衛는 强大國이 主導權을 가지고 位階的(hierarchical)으로 조직해놓는 相互集團防衛體制인 條約機構보다는 각국의 自主性 침해가 덜하다는 잇점은 있으나 그대신 威力은 약하다는 불리점이 있다. 다수의 국가가 포함되어 각국가간의 利害關係가 상반될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넷째 中立을 선언 유지하는 방법이다. 以夷制夷의 방법이 弱小國이 주도가 되어 强大國의 힘을 調整하여 중화시키는 방법인데 반하여 中立의 방식은 强大國간의 合議로 中立을 인정해 줌으로써 가능해지는受動的 상태이다

---

30) 李相禹,「 韓國의 安保環境」, (서울:書香閣, 1977), PP. 58 ~ 60.

地政學的인 위치가 특수하여 强大國간에 緩衝地帶로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合議될 경우 中立은 有效해지며 그결과는 최소한의 制約으로 그 弱小國의 自主性을 確保維持 할수있게 된다. 최소한의 制約이란 中立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特定國家를 支援하는 行爲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방법은 弱小國으로서는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現實的으로 强大國간에 中立保障合議가 이루어 진다는 것이 그리쉽지 않아 政策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흠이다.

다섯째가 自衛能力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弱小國으로서는 자국의 國力으로 自衛하는 것이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自主防衛能力을 최소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수있다.

强大國의 힘은 여러곳에 分散되어 사용하려하거나 되어질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特定弱小國에 作用하는 힘은 일부 분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弱小國의경우 防衛해야할 지역이 좁아 단위면적당 軍費를 높히기 쉽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自衛能力을 갖추는것은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弱小國은 가능하다면, 그리고 부담에서 오는 被害가 견딜수있을 정도이기만 하면 自衛能力을 갖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것이다.

3. 國防地理的 安保 現實

우선 國防地理的인 측면에서 볼때 歷史的으로 韓半島는 周邊强大國들에 의하여 둘러쌓인채 强大國들의 利害關係가 집숙히 개입된 곳이어서 中國人들은 韓半島를 中國의 首腦部를 강타할 쇠망치로 생각했고 日本人들은 같은 논리로써 日本의 心臟部를 겨냥한 短刀로 생각했다.[31]

---

31) 金學俊, 「韓國問題와 國際政治」, (서울:博英社, 1979), P. 135.

韓半島는 또한 러시아가 海洋으로 진출할수있는 根據地로서의 역활도 하였으며 美國人들은 韓半島를 大陸勢力이 海洋으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할수 있는 防波堤로 생각했다. 이들 세력이 충돌할 때마다 淸·日戰爭, 露·日戰爭 그리고 가까이는 韓國戰爭등 韓半島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간의 전쟁터로 화하였다.

韓國의 地政學的 위치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Mckinder의 心臟部理論(Heartland theory)[32]에 따르면 韓半島는 大陸勢力과 海洋勢力이 교차하는 지대로서 大陸勢力에 偏向하고 N.J.Spykmen의 周邊地帶論(Rimland theory)[33]에 의하면 世界紛爭의 진원지대의 하나로써 大陸·海洋勢力의 中心的 地帶에 위치를 정하고 있다.

이 관계적 위치는 타국가의 隣近位置(Vicinal location)를 말하는 것으로서 國際關係와 국력면에서 볼때 다른 지리적 위치나 수리적 위치보다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34]

흔히 地政學上 한반도의 위치는 邊境的位置, 橋梁的位置, 緩衝的位置, 中央的位置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定義한다.[35]

邊境國家(Rim Land Country)的 位置란 韓半島가 대륙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성격으로써 대륙의 침략소지가 잠재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다.

---

32) H.Mckinder, *The Round World and the Winning of the Peace* (Foreign Affairs, July, 1943).

33) N.J.Spykmen, *The Geography of Peace*,(1944).

34) 崔昌潤,「國際政治論」, (서울:博英社, 1977), P. 81.

35) 朴埈弘,「韓半島의 平和와 安保」, (서울:博英社, 1978),PP. 19 ~ 20.

橋梁國家(Bridge Country)的 位置란 中·蘇등 아시아 대륙세력과 美·日·英등 해양세력이 각각 해양과 대륙쪽으로 **膨脹政策**을 추구할 경우 **韓半島**는 그 통로가 된다는 성격으로써 양대세력은 한반도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다.

壬辰倭亂때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征明假道란 말과 근세의 **淸·日戰爭**(1894年) **露·日戰爭**(1904年) 中·日戰爭(1934~1935) 그리고 **韓國戰爭**(1950年)등이 그 예로써 한반도가 지니는 **橋梁的** 성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緩衝國(Buffer State)的 位置란 周邊國간의 세력투쟁에 있어 완충적 위치로써 周邊國중 어느 한나라도 **韓半島**를 독점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勢力均衡政策**의 원리가 작용함을 뜻한다.

中央國家的位置란 周邊 **强大國**의 地理的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그 존재 가치가 낮고 약할때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그 반대로 강할때는 周邊 **强大國**간의 세력다툼을 中和시키고 **調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의 **安保現實**은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때 1991년 말 **大소비에트聯邦**의 **消滅**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 여파가 **韓半島**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韓半島 문제는 **極東地域**의 **軍事 政治的 情勢**에서 향후 10년간 최대의 초점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南北韓** 긴장이 완전한 **危機狀況**으로 전개될 수 도 있다.[36]

---

36) **國防日報**, 1992. 12. 8일자.

南北韓 關係가 최근 북한의 순전시 상태 선포와 NPT 탈퇴와같은 危機狀況[37] 으로 될경우 美·러시아 關係도 악화돼 공공연한 對立局面으로 접어들게 될것이고 極東地域은 美國·러시아·中國·日本등 4대 강국의 국가이익이 얽혀져 있는 지역으로 각각 자국의 군사력과 실제적 정책에 의해 대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데다 대규모의 군사력이 집중<표 - 1 참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集團安保體制가 부재하기 때문에 군사적, 정치적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

만일 北韓이 南韓에 대해 군사분계선에서 모험적인 행동을 한다면 美國의 군사적 개입을 초래할 것이고 日本은 美·日 條約上의 義務 외에도 지역내 자국의 군사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행동을 전폭지원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되면 南韓은 美·日의 지원하에 北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기위한 호기가 도래했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고 이에따라 韓半島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자칫하면 韓半島가 강대국들의 세력투쟁의 犧牲物로 되어버릴수 있다.아울러 美國防省 발표에 따르면 韓半島에서의 核戰爭에 대비한 준비를 천명[38]하였다

이런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韓半島의 문제는 北韓의 核開發<표 -2 참조>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日本 또한 核開發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韓半島 戰爭은 核戰爭이 될 가능성을 排除할 수 없는 실정이다.

---

37) 國防部, "北韓 核戰略 底意와 韓半島 安保"(「國防」, 1993.4), P. 40. ;國防日報 1993.5.5일자.

38) 國防日報, 1992. 12. 19일자 참고.

결론적으로 힘의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 사회에서 완전한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은 자주 방위능력을 확보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며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상황에서의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自主國防의 安保기틀을 확고히 다지고 있지 않으면 그희생의 정도는 그만큼 커질것이다. 더우기 北韓 共産集團이 全韓半島의 赤化統一野慾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第 2 節　安保上의 問題點

1. 國內的　安保 威脅要因

가. 不完全한 政治文化

民主的 政治制度는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자체가 民主的 社會 生活을 保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民主的 社會生活을 하느냐 않느냐는 국민각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行動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民主的 原理들은 교실에서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삶(democratic living)을 통해서만 배울수 있을 뿐이다. 民主主義를 가르친다는 것은 民主的 雰圍氣가 확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지난 40여년간 學校와 社會에서 민주적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채로 민주주의를 이론적으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民主主義의 실천에 관해서 실천적 교육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습관, 사고방식, 규범, 사상, 인습들이 우리의 가정, 가문, 친구, 직장등 일상 생활의 영역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을 밀접하게 지배하고 있는것을 인정해야 한다.

진정한 民主化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 개개인이 민주적 사고와 행동습관을 습득하고 실천하는데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민주적 분위기가 자리잡고 민주주의적 理念이 국민의 전체 생활양식에 반영될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民主社會가 이룩될수 있다.

따라서 민주적인 민주주의의 의미는 정치제도나 정치권 그리고 정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활양식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생활준칙에는 判斷의 基準과 道德的姿勢가 포함된다.[39]

英國의 경우 19세기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民主主義敎育讀本을 제작 및 교육하여 오늘날의 발전된 民主社會를 이룩하였고 美國은 民主市民의 準則(Characteristics of the Good Democratic citizen)을 제정활용하고 있다.[40]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국민 의식 수준에 맞도록 제정하여 적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앙상레짐'을 붕괴시킨 프랑스혁명이 民主主義를 선포한 이래 오늘날 구미지역에서 볼수 있는 民主主義를 성취하기까지는 많은 試鍊과 葛藤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한나라가 民主主義 국가라고 말할 수 있기까지는 수세대 동안의 성장기간을 필요로하는 것이 보통이다.민주주의는 어느곳에서나 결코 완전히 성취된 적이 없는 制度이다. 民主主義는 불완전한 상태로부터 보다 완전한 형태를 꾸준히 성장되어가는 思想과 制度이다. 그렇기 때문에 民主主義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처음으로 시도하는 나라에서는 상당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전 준비없이 民主主義를 도입했고 위정자들의 功보다는 過가 더심하여 民主化過程이 遲延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

39) 韓國國防研究院, 「精神敎育 敎材」, 1991, P. 31.

40) 民主市民의 國家安保觀 社會福祉價値 및 判斷能力등을 規定, 上揭書, PP. 31 ~ 34. 참고.

나. 韓國經濟 實狀의 問題點

80년대 중반에 우리의 경제가 아시아에서 4마리의 龍으로 부상될때 日本의 한 학자는 "한국경제는 龍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意識構造는 일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는 돈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어느정도 먹고살게되면 兩班意識으로 인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우리가 경계해야할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시장경제체제에 있어서 소비자는 經濟活動의 유형 및 규모를 결정하는 主權者의 위치에 있다. '消費者가 王'이라는 말은 큰기업이나 정부 또는 노조에 의한다는것 보다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 의해서 경제활동의 종류와 규모가 결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購買力을 가진 消費者가 經濟倫理에 위배되는 소비운동을 함으로써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이에따라 생산구조가 바뀌게되고 전반적인 생산잠재력은 악화된다. 또 消費者가 소비만하고 저축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재생산만을 되풀이하는 정체사회를 면치 못하게 되며 따라서 경제성장을 멈추게 된다. 消費者는 또한 消費 및 저축유형의 변화를 통해서 기업의 반윤리적 행동에 제재를 가할수도 있다. 이러한 消費者의 역활을 고려할때 우리사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消費生活의 합리화와 貯蓄 및 節約이 특히 강조된다.

최근 국내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물가불안 國際收支의 악화등도 따지고 보면 결국 消費行爲 및 그 내용과 직·간접으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한 예로써 80년대초 이후 가계저축률을 비교한다면 日本 및 臺灣이 13% ~ 14%인 반면 우리의 경우 6.5% ~ 8%에 지나지 않고 있어 그간 不知不識간

에 사치나 낭비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음을 볼수 있다.[41] 消費生活을 合理化한다는 것은 사치품에 대한 소비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생필품에 대한 消費는 건전한 消費로써 經濟力의 기반을 이루며 不況에 대한 방파제의 역활을 한다. 편리품에 대한 소비는 기업으로 하여금 양산체제를 갖춤으로써 가격의 저하를 가져오고 나아가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준다. 그결과 모든 消費者의 혜택으로 재환원됨은 물론이고 건전한 消費가 원활한 경제 순환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오직 절약과 貯蓄만이 美德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消費生活을 통한 節約과 貯蓄은 經濟, 社會發展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기초를 이룬다.즉 貯蓄은 인적, 물적 자본형성을 위하여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에 의한 투자재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自立經濟의 기틀이 된다. 그런데 우리 經濟의 現實은 어떤가? 勞動集約型 생산품은 후발도상국(中國, 인도네시아)에 뒤지고 기술집약형 생산품은 기술선진국(日本, 獨逸)에 뒤떨어져 국제수지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최근 임금의 2 ~ 3배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기술개발 부분의 투자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회적으로는 과소비현상이 확대되어 1인당 GNP 5,000불 국민이 1인당 20,000불 국민과 같은 과소비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저소득근로자의 노동의욕을 더욱 저하시키고 저축부진을 부채질하여 재투자 자원의 부족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競爭力은 우리의 국운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결정한다는 확고한 인식 아래 우리의 에로 및 소비태도의 재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

41) 韓國國防研究院, 前揭書, P,41.

다. 社會 · 文化的 問題點

韓國의 傳統社會는 마을공동체와 친족공동체를 일상생활의 기본단위로하는 社會였다. 그러한 社會에 있어서 社會的 상호작용의 범위와 대상은 대부분 血緣과 地緣으로 맺어지는 동질적인 사람들이였다.

그러므로 전통적 社會에 있어서의 社會關係는 대부분 緣을 기초로 한 정적인 관계의 틀에 의존하는 것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 緣의식은 또한 모든 緣의 관계를 가족적인 連帶의 연장으로 인식하려는 家族主義에 의해서도 특징 지어진다.

韓國人 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도 가까와지면 흔히 부자의 義나 형제의 義를 맺음으로써 가족적유대를 성립시키려 하였으며 가까운 이웃나라와의 관계도 兄弟之國과 같은 가족적 緣의 관계로 규정하려고 하였다. 이와같이 緣에의해 규정되는 모든 인간관계는 따라서 가족적인 '情을나누는'관계 이기도하다. 傳統社會의 韓國人들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親 · 義 · 緣 등으로 맺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情'을 나누어야 할 대상이며 따라서 모두가 한 '누리'이고 한'겨레'였던 것이다.

이 情의 關係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랑의윤리'를 정당화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同質性을 기초로하는 기계적 연대나 人間關係에 있어서 情緖的 충족을 추구하는 행위 유형으로써 感情性(affectivity)과도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 된다.

이와같은 情의 文化는 佛教의 보편적인 因緣意識 과 儒教的인 家族主義意識이 독특하게 결합된 '緣'을 기초로하고 '가족적 情'을 매개로 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사회윤리'로써 특징워진다. 이情의 文化는 더 나아가 韓國

人의 自然主義(자연과의 조화사상) 人本主義(인륜을 인간의 도리로서 규정하는 인본사상)등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어떻든 전통적인 韓國人文化는 그 종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緣에 의해 기초한 情의 문화로서 개념화 될수있다. 즉 傳統社會에 있어서의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대상과의 緣(親·義)을 확인하고 그 서열을 규정한 다음에는 그 관계에 적절한 가족적인 情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생활양식을 유형화, 제도화하고 있었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情의 문화로써 특징 지위지던 우리의 전통문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구한말에 이르러 서구문화의 충격을 받게 되면서 부터였다. 舊韓末의 한국인들에게 비친 서구문화는 무엇보다도 '힘의 文化'로 특징 지어지는 것 이었다.

오랫동안 隱者의 나라였던 韓國社會의 지식인들에게 서구문화는 풍부한 文物과 技術 그리고 월등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압도해 오는 위협적인 존재로 받아 들여졌다. 조선조 후기에 實學思想이 일어나고 舊韓末의 知識人들의 '東道西器'를 주장한것 그리고 開化 知識人들의 開化를 주장하게 된 것도 서구 식민제도의 침략을 막아내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富國强兵과 자강을 도모하지 않을수 없게된 서구문화충격에의 대응 방식이었던 것이다. 결국 大韓民國이 외세와 외압에의 自主的 대응에 실패 하고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 되었던 壓制治下에서 끊임 없는 항일민족운동 도 민족의 독립과 자강을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한 韓國人의 투쟁과정 이었다. 解放을 맞이하게 되었을때 韓國人들은 이제야 말로 내힘으로 그리고 내손으로 弱小民族 과 後進國 이라는 굴레를 벗어버리고 근대적인 市民國家를 형성하고 富國强兵의 목표를 추구해야 할 때라는 자각과 열망을 갖게 되었

다. 그러나 南北 의 分斷은 또 한번 韓國人들로 하여금 弱小民族의 挫折과 悲哀를 맛보게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시작된 60년대 이후의 工業化는 韓國社會에 있어서의 傳統的 '情의 文化'를 '힘의 文化'를 바꾸어 놓았다. 國家的으로 經濟自立과 富國强兵의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經濟 成長을 달성하였고 개인적으로는 "나도 한번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자"는 '期待上昇의 革命'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産業社會 에서 緣과 情 그리고 從의 文化가 그 적합성과 경험적인 타당성이 약화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삶의 양식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개인의 地位上昇과 성공을 위해 현대의 한국인들은 높은 교육열을 갖게되었고 學力이야 말로 韓國社會에서 중요한 地位上昇의 통로로 작용하였다. 또한 權力이 富와 名聲을 함께 차지하는 수단이 되었던 조선조 관료사회의 가치관도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오랫동안 韓民族의 염원이었던 富國强兵의 목표가 60년대 工業化와 경제 성장을 통해 어느정도 달성되어 '祖國近代化'의 偉業이 성취되고 절대빈곤 인구의 비율이 10% 미만으로 감소하는가 하면 국민의 일반적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國際社會 에서의 한국의 지위가 높아지는등 '힘의 文化'는 한국사회의 발전의 推進力으로 작용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量的 成長과 擴大'에 편중된 경제개발 전략의 추구는 계층간의 소득격차와 도시·농촌간의 소득격차 그리고 그와 같은 불균형이 가져온 상대적 빈곤의식의 擴散 등으로 社會的 葛藤의 요인을 증대시키고 社會秩序의 混亂을 일으켜 온것도 사실이다.

한편 물질적으로 성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

고 돈만 벌면 된다" 는 식의 沒價値(anomie) 현상도 일어났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 "요령있고 배경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는 무규범성이 확산되고 사람들은 공정해야할 게임규칙(rull of the game) 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지켜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난 '힘의 文化'와 이와 더불어 나타난 物質主義, 出世主義 등의 가치지향으로부터 탈피하고 새로운 산업 사회의 社會倫理와 國民精神을 확립해 가야 할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80년대 이후의 韓國社會는 成長과 分配의 均衡,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성장, 타율에서 자율과 참여에로, 양적 팽창에서 질적 내실화에로, 權威主義에서 合理主義에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힘의 文化가 정당화된 사회는 權力과 金力과 暴力이 약자의 주장과 요구를 억눌러 문제해결이 강자의 논리로 집약되어 해결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고 민주적인 시민사회가 될수 없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활상태에 대한 불평, 불만을 야기시키고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켜 국민의식의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며 국가에 대한 애정과 신뢰감을 약화시키고 종국적으로 국가를 멸망케하려는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42]

---

42)國防日報, 1993.5.4 일자.

라. 外交·軍事的 觀點

(1) 軍事安保的 側面

軍事安保的 측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 되고 있고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요구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다.[43]

이는 한국에 엄청난 부담을 줄것이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국방비 삭감논의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44]

세계 저명한 전략가들이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는 바로 한반도라는 공동의식을 가지고 있다.<표 -11 참조> 그런데도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있는 韓國만이 방위비를 감축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처럼 안보적으로 위협이 없는 日本이 軍事力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동남아 여러국가들도 아주 획기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유독 우리나라만이 방위비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더구나 위험한 것은 "이제 戰爭은 없다, 곧 통일이 온다"하는 장미빛 환상에 젖어 있는 대부분 국민들의 잘못된 의식과 이를 이용하려는 좌경세력들 과 같

---

43) 주한미군 철수일정 : 1단계(90~93)-공군병력3천명 및 지상군비전투원 5천명 감축, 2단계(94~95)-앞으로의 상황과 북한의 반응에 따라 추진, 3단계(96년이후) - 추후 계속 논의 ; 경향신문 1990. 4. 4일자

44) 하영선 : "탈근대 국제질서와 군비축소"(「평화연구」, 창간호, 고대평화연구소 1990). PP. 47 ~ 48.

은 것들이 우리나라 오늘의 현실이며 이러한 것들이 北韓의 도발 가능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軍이라고 하면 전쟁을 연상하고 民이라고 하면 평화를 연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다. 전쟁은 정치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일어나는데, 전쟁 수행은 군인이 한다. 따라서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게 아니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국방비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간과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여러가지 상황이 北韓으로 하여금 挑發을 유발하도록 자극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2) 外交安保的 側面

東西冷戰의 마지막 대결장으로 남아있는 南北韓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비록 分斷狀態의 변화가 당장 기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南北韓 관계와 지역 긴장상태에 새로운 轉換의 突破口가 열리지 않을까 국내외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 우선 유엔 가입으로 韓國은 지난 48년 유엔 결의로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政府로 인정 받았으면서도 國際平和問題를 다루는 이국제기구에서 43년간 기아로 처리되었다가 戶籍申告를 한셈이다.

지난번 유엔가입은 그동안 지루하게 전개되어온 유엔에서의 南北對決과 최근까지의 단독· 동시, 혹은 단일의석 가입안을 놓고 벌인 南北韓의 對立的 側面에서 보면 한국측 주장대로 동시가입이 이루어져 서러웠던 한시대가 우리의 주도로 마감된다는 의미도 있다.

특히 北韓의 유엔 가입결정이 國際變化에 따른 어쩔수 없는 것임을 밝히고 있고 최근 蘇聯變化의 충격으로 과거와 같이 유엔에서 대결적 입장만을 취하지 못할 것이란 점도 韓國 외교엔 큰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자체를 냉정히 뜯어보면 이같은 의미못지 않게 많은 과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南北韓 問題에서 유엔은 48년 남한만을 合法政府로 인정했고 韓國戰爭때는 北韓을 侵略者로 규정했으나 이에대한 아무런 수정이나 無效宣言 없이 南北韓을 會員國으로 가입시켰다.

이는 國際政治상의 力學關係가 낳은 결과이지만 모순된 조치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같은 會員國이 된 北韓이 協力的 關係設定을 하지 않을 경우 유엔가입 자체가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특히 안보문제에 관해서는 작금의 남북한 UN동시 가입이나 동서화해 분위기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결을 완화시킬 것으로 낙관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45]

이는 연형묵 총리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대외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한미군 철수등을 주장하고 핵문제와 관련, 한국은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현상을 의도한 대미관계 변화를 시사한 사실들은 그들의 대남전략이 본질적으로 전혀 변화되지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

45) 北韓은 대남전략의 우위확보를 위한 NPT탈퇴선언으로 南韓을 배제하고 美國과 직접협상을 실현시킬 속셈이며 대남강경대응자세를 계속 견지하고 있음

마. 軍의 不正腐敗 와 安保威脅

가장 强力한 安保集團인 軍이 지금 道德 不感症이란 중병으로 인하여 韓國의 安保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左傾容共 暴力革命勢力이 준동하고 周邊强國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安保를 威脅하고 있는이때, 軍은 不正腐敗와 不條理로 얼룩진채 한세기를 마감하려 하고 있는것이다.

얼마전에 퇴역후 國防日報를 비롯한 安保 關係 雜誌에 軍의 不正腐敗와 不條理에 대한 개탄의 소리와 軍幹部들에 대한 道德的 意識 改革으로 軍의 位相定立을 呼訴하였던 글을썼던 전직 참모총장, 국방부장관등을 지낸 고위직 將星들이 지금에 와서는 재직시 不正腐敗 혐의에 연루되어 구속 혹은 당국의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전,현직에 있는 일부 군관련 고위인사들도 이러한 不正腐敗, 不條理등과 관련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오랫동안 軍은 이러한 가면을 뒤집어 쓴채 가증스럽게도 하위직 군인들에게만 맹목적인 忠誠을 강요해왔다.

軍隊生活을 하는 대다수의 사병들이나 청년장교들은 상관을 진정으로 존경하며 國家와 民族을 위해 忠誠을 바치지만 어느정도 軍生活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실정을 어느정도 알게 되고 부터 상관에 대한 背信感으로 이러한 軍을 위해 무엇을 할수있을 것인가 하는 疑問에 사로잡혀 고민하며 현실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실정이다.

각종 人事 關聯 非理, 각종 軍需物資에 대한 不正處分 및 관련부정, 不條理, 軍現代化 事業不正 등 軍은 國家安保의 최후보루라는 미명하에 어마어마한 國家豫算을 집행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檢證을 제대로 받지 않고 집

행실무자로 부터 결재, 감독권자에 이르기 까지 모두 한통속이 되어 온갖 방법으로 不正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國家와 民族을 위해 고생만 하는냥 자기도취에 빠져 이러한 現實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軍의 道德的 타락성이 國民의 의식변화와 함께 대다수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軍人들의 意慾과 士氣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軍에대한 국민의 애정과 신뢰를 약화시켜, 軍을 不信의 늪으로 몰아넣고 아울러 사회의 不正腐敗상과 연결되어 軍과 政府에 대한 不信이 조장되고 北韓과 또한 그들의 동조세력인 國內 左傾暴力革命勢力들의 宣傳 煽動에 이용될수 있는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이는 國家安保의 가장 큰 威脅要所로 부각되었다고할 수 있다.

바. 左傾容共 勢力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大韓民國의 民族的 正統性을 부정하면서까지 북한 공산집단의 주의 주장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다.[46] 70년대 이후 이들은 西歐의 現代急進思想을 수용하면서 우리의 현대사와 남북한의 현실을 외면하고 체제전복세력으로 사회 전면에 등장하여 무분별한 주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

43) 警察廳 통계에 따르면 北韓에서 지령을 받고 있는 核心 地下黨 조직이 4천명이 있다고 함, 北韓으로 송출되는 暗號가 월 4,200회정도인데 이것을 근거로 역산하면 2만명 수준임. 이들과 추종세력을 합하면 약 20만명에 달할 것임 ; 國防部 政訓官室, 前揭書, PP. 32 ~ 33.

물론 우리 사회가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주의 주장이 분출되는 것은 당연하고 체제의 발전을 위해 응당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주의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체제가 갖는 강점을 잘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 주장을 위해 내세우는 구호가 북한 공산집단의 그것과 일치하며 좌경 용공세력이라 불리우는 이들의 기본이념과 전략 전술이 北韓 共産集團과 대동소이함에 이르러서는 이들의 실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좌경 용공세력은 우리 사회내에 존재하는 각종 불만과 갈등을 극대화 하면서 自由民主主義 體制에 대한 不信 雰圍氣를 造成하고, 노사문제 개입을 통해 건전한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계급투쟁을 통해 국민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빈번한 시위와 폭력투쟁을 주도하여 國論을 分裂시키고 國力을 消耗를 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국가 통치력의 약화를 기도하는 등 우리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폭력적 鬪爭方法을 채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인의 죽음까지도 미화·장려하면서 각종 투쟁의 전기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극한 鬪爭의 方法을 동원하면서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기본 認識은 그 주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추구하는 목적의 저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의심케 한다.

실제 우리가 좌경 용공세력의 주의 주장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지식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위한 수단을 정당화하면서, 국가이익에 반하는 각종활동을 전개하고, 北韓 共産集團의 基本 理念과 戰略 戰術을 그대로 따르는 이들을 과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기에 받아들여야 하는 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학생운동이 그 결과적인 면에서는 民主化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좌경 용공세력은 과거 학생운동에서 나타나 있듯이 더이상 건전한 정치비판세력이 아니다. 체제비판을 넘어 체제전복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北韓 共産集團의 노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극렬한 투쟁방법을 택해 이를 서슴치 않고 행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이 극심하던 시기에 우리 사회가 겪었던 위기상황이 어떠했는가에 관해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재까지도 그 휴유증이 사회전반에 걸쳐 남아 이를 회복하기 위한 國力의 낭비가 엄청난 것만 보더라도 이들에 의한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을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政治的·經濟的 발전이 이들의 국단적인 투쟁에 의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우리가 가꾸고 지키고자 하는 自由民主主義體制의 수호를 위해서 이들의 활동은 적극 저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左傾 容共勢力이 점차 일반은 물론 學生들 사이에서도 점차 疎外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의 국단적인 左傾化와 극렬한 鬪爭方法에는 비록 한때나마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던 일부 國民들 마저도 등을 돌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지금까지 左傾 容共勢力이 權力에 대한 鬪爭手段으로, 體制顚覆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했던 社會主義 논리는 대부분의 社會主義 國家들은 물론 宗主國인 蘇聯마저도 포기한 오늘에 이르러서는 더이상 呼訴力을 갖지 못하고 있다.

暴力革命을 통한 급격한 변혁은 오히려 억압을 가져오고 생명과 재산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 경험하고 있는 教訓이다. 社會變革의 방법으로 폭력투쟁을 서슴지 않고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좌경 용공세력은 그 추구하는 이념과 투쟁방법에 있어 北韓 共産集團의 그것과 더이상 구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유일한 社會主義 國家로 남고자 하는 北韓 공산집단과 함께 또 다른 실체로 다가온 敵이라 하겠다.

2. 北韓의 威脅

가. 北韓 共産集團의 對南赤化戰略

우리에게 직접적인 威脅을 주는 대상은 北韓 共産集團이다. 北韓 共産集團은 南韓의 共産化를 궁극목표로 하여 그 목표달성을 위한 基本軍事戰略槪念과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軍事力을 유지하고 있다.

北韓이 추구하는 대남전략 목표는 北韓을 모체로하여 소위 朝鮮革命을 거쳐 전한반도를 共産化 統一하는데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47]

그들은 勞動黨 規約 전문에서 "朝鮮勞動黨의 당면 목적은 共和國 북반부에서 社會主義의 완전한 勝利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民族解放과 人民民主主義 革命課業을 완수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北韓

---

47) 韓國勝共研究院,「 國際共産主義 戰略」,(서울: 대우문화사, 1983), PP. 699 ~ 709.

공산집단은 防禦目的이 아닌 攻擊目的과 南韓侵攻을 상정한 전략개념에 맞추어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공산집단은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서 공세작전을 실시할 개념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공산집단이 최근 핵무기를 비롯한 첨단 공격용 무기체계를 강화[48]하고 있는 사실과 특히 남침한 사실이 입증하듯이 기회만 있으며, 여건이 성숙되면, 그리고 더 이상 선의의 체제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무력사용을 주저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입장에 있다. 북한 공산집단은 6.25 전쟁을 民族解放闘爭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성전으로까지 미화하면서 민족 해방을 위한 전쟁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北韓 共産集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화공세를 펴면서 전쟁이나 남침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남한 공산화를 위한 전쟁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다.[49] 남침 의사가 없다고 하는 북한 공산집단은 70년대까지 격렬한 대남 도발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80년대에 들어 와서도 버마 아웅산 사건, KAL기 폭파 사건 등 엄청난 희생을 초래한 對南挑發을 자행하였다.

北韓 共産集團의 直接的인 武力攻擊의 威脅과 더불어 휴전이후 지속적으로 감행해 온 이러한 테러와 습격행위는 한국의 통치권과 권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 불안을 조성시켜 다음 단계의 전략을 구성하도록 하

---

48) 최근 北韓은 核武器開發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 「노동1호」 개발, 스커드 미사일 의 實戰配置와 공격용 化學武器 생산능력이 연간 5천톤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이 밝혀지고 있다.; 이원복, "인류의 화학전 공포는 사라질 것인가" (「국방」, 1993. 3), 참고.

49) 韓國 勝共研究院, 前揭書, PP.712 ~ 716.

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다음 단계라 함은 소위 공산집단의 남한 적화전략 면에서 볼 때 제한적 혹은 전면적 무력사용을 상정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무력침공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테러나 습격행위는 다음 단계로 진전될 수도 있고 周邊與件이 성숙되고 소위 그들의 역량이 축적되고, 또 한국내의 통치권위가 충분히 약화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산발적으로 계속되어 질 수도 있다.

南北韓 간의 交流가 활발해지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기대를 밝게 하고 있으나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전쟁재발의 威脅과 공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北韓 共産集團은 여전히 함께 살아가야 할 형제인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간적인 삶을 억압하고 왜곡하고 있으며, 공산권의 종주국인 소련조차도 포기해 버린 共産主義 理念을 따르면서 우리 민족의 번영을 외면한 채 공산화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나. 北韓의 核武器 開發 과 軍事力增强

日本의 防衛白書에 따르면 北韓은 막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사정을 무릅쓴채 軍備를 계속 증강해 온것으로 나타나있다. 91년 총 생산의 25%를 군사목적에 투입하는등 軍備增强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IAEA(國際原子力機構)의 3차례에 걸친 임시사찰에서 北韓은 2개의 미신고 核施設중 하나가 「軍事目的用」이었음이 밝혀져 北韓의 核개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영변의 방사화학 실험실에 核 재처리시설로 간주되고 있

는 실험실 건설을 계속 강행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北韓은 특히 핵폭탄제조의 원료가되는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를 자력으로 설계 제작하여 최근 수년간 운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원자로에서 나온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원자로에서 사용한 연후의 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분리해 내는데도 成功한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北韓 核開發 의혹에서 볼때 北韓은 87년부터 가동해온 것으로 확인된 영변의 30메가왓트급 제2원자로가 풀가동됐을 경우 현재 약 1백30내지 1백80톤의 核廢棄物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5kg정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해낼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50]

15kg의 플루토늄은 2차대전당시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2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니 北韓의 核挑發을 막기 위해선 南北韓 相互査察등 국제적인 감시통제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北韓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완성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이른바 건군60주년(92. 4. 25) 기념행사에서 보인 군사력 과시와 金正日최고사령관 추대이후의 대규모 군승진인사 등에서 北韓의 군사력 우위전략은 여전히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북한군사력이 「韓半島 危險存在」라는 美國防部 「亞·太戰略 構造報告書」에 따르면 현역의 65%를 증강시킨 중장비와 함께 휴전선 1백Km이내에 집결시켜 놓은 것으로 돼있다.

5천4백문의 자주포와 3천문의 견인포, 2천4백문의 로켓포 등을 추가함으로써 南韓에 비해 2.3 대 1로 우세한 군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北韓 군사력은 아·태지역에서 북한이 얼마나 軍備增强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를 단적

---

50) 국방일보, 1993. 4. 21일자. (WT인용보도).

으로설명해 준다. 뿐만 아니라 北韓은 4천대의 전투용 보병차량을 다시 배속했고 1천대의 신형탱크를 포함 3천5백대의 공격용 탱크를 보병부대에 배치했는가 하면 6백70척의 해군함정, 7백 48대의 제트전투기와 1천 4백대의 수송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美國防部 보고다.

3. 周邊國家들의 軍備增强

세계적인 脫冷戰, 軍備축소 경향에도 불구하고 亞·太지역에선 여전히 군비경쟁에 몰두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최근 언이어 보도된 동북아시아 각국의 군비동향을 보면 이같은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한다. 中國·日本·印度 그리고 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北韓 그 어느 나라에서도 군비축소의 기운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北韓의 核開發 위협까지 겹쳐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베트남 캄란만에서의 소련군 철수, 필리핀주둔 美軍기지 폐쇄등 힘의 공백이 나타나면서 亞·太지역은 나라마다 이러한 安保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군비경쟁이 한창이다. 이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것으로 볼수 없고 軍備競爭의 加速化로 인한 각국의 부담 과중은 결과적으로 긴장 완화와는 거리가 멀다는데 문제가 있다.<표 - 7.8 참조>

가. 日本의 軍事大國化

일본이 점차 군사대국화로 가는 것은 일본의 방위예산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990년도의 방위예산은 4조 1천5백93억엔으로 GNP대비 0.997%, 일본회

계 세출예산 대비 6.27%에 달한다. 세계군사전문지 밀리터리 밸런스(Military Balance)집계로는 일본의 방위예산규모가 미·소·영·불·독일에 이어 세계 6위이지만 엔화를 달러로 환산하면 미·소에 이어 세계 제3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美국방성의 분석이고 금년도에도 약 3백71억 달러를 방위예산으로 책정했다.[51]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펴낸 國防白書(1990.11.8)에 따르면 일본은 1천2백27억달러(1986년 환율기준)를 투입한 新中期防衛計劃(1986~1990)에 이어 이보다 약 3백억달러나 증액된 1천5백67억달러를 투입해 次期防衛力 整備計劃(1991~1995년)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52] 밝혔다. 일본의 이같은 방위력 증강은 1991년부터 시작되는 차기방위력 정비계획기간중 AWACS(공중조기경보기), 초수평선(OTM)레이다, 공중급유기, 多聯裝로케트시스템(MLRS)등의 도입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기실 日本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제한된 범위안에서 專守防衛槪念의 재무장이 허용된 이래 지난 40년동안 자위대의 지속적인 戰力增强(년 7%)을 해 왔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은 차기방위력 정비계획(1991 ~ 1995)에 착수하게 되어 자위대의 戰力은 앞으로 더욱 증강될 전망이다.

美國은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거의 철군하고 이 지역 방위를 當事國들에 맡긴다는 방위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의 日本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日本의 방위력 증강은 결과적으로 韓·美·日의 安保協力關係에 새로운 변수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北韓

---

51) 동아일보, 1993.5.17일자.

52) 서울신문, 1990.11.8일자 (국방부刊, 「90국방백서」 인용)

·蘇·中간의 군사관계와 域內國家들의 군사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東西解氷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오늘의 국제상황에서 이에 구애되지 않는 일본의 軍國意志이다. 1990년 4월 23일 가이후 前총리는 의회에서의 질의답변에서 "미·소 긴장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防衛大綱을 개정치 않겠다.[53]"고 답변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6월 28일에도 가이후 前총리는 이같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가이후 前총리의 이러한 답변은 동서해빙에 관계없이 「차기방위력 정비계획」(1991~1995년)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日本의 방위계획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 美軍의 철수에 따른 힘의 공백을 일본이 점차 메꿔 나가게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日本의 무로야마 요시마 교수에 의하면 自衛隊는 서기 2000년 이면 태평양지역 최강군대로 자리잡고 制海權과 制空權 모두 美國을 능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日本이 아시아패권에서 태평양의 맹주로 활약 가능하기 위해서 현재의 防衛費를 GNP 1%를 3.3%로 올리거나, 1%를 그대로 둔다해도 경제성장율을 3 ~ 4% 올리고 환율을 달러당 90 ~ 130엔까지 변동시키면 가능하다고 한다.[54]

日本 自衛隊의 국제적인 군사적 역할의 示唆는 걸프전쟁이 발생했을 때

---

53) 統一院, "北韓 및 周邊情勢 動向日誌",(「民主統一論」, 1991), P.187.

54) 배찬복, "학원가의 인공기 왜등장하는가",(「새물결」,1992년 여름호, 자유평론사), P. 81.

보인 日本의 태도에서 역력히 드러났다. 自衛隊의 해외파병에 대해서 1990년 9월 21일 日 외무성은 **經武裝** 자위대원의 걸프灣 파견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는데 9월 27일에는 가이후 前총리가 自衛隊 중심의 유엔평화협력대 창설 및 해외파견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평화협력법안」을 발표하자 야당들의 거센항의와 대외적으로 과거 日本의 침략을 받았던 韓國, 中國, 東南亞諸國의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일본은 결국은 11월 8일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대」를 편성, 대치키로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日本 정부는 1991년 10월에 세계평화 유지명목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법안(PKO)'을 衆議院에 제출, 92년 6월 15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6월 19일 공포하는등 군사적 진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경제대국에 걸맞는 국제정치상과 군사상, 美國과 같은 강대국 역할을 수행하려는 新軍國主義의 發現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日本의 군사대국화 시행과 파병법의 名分은 구한말의 출병과 名分이 너무 똑같아 마치 구한말의 불행했던 과거를 연상케한다. 따라서 우리는 비장한 覺悟와 政策으로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55]

또한 日本은 종래 구소련의 威脅에 대한 대응에 두었던 自衛隊 배치를 韓半島 및 中國의 위협이 일본주변의 불안정요인으로 보고 이에 적극대처한다는 입장에서 自衛隊 배치체계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56]

---

55) 배찬복, 前揭書, P.80.

56) 동아일보, 1993. 5. 9일자.

나. 中國軍의 現代化

아시아 地域의 유일한 核 强國인 中國은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軍의 精銳化, 軍 裝備의 現代化 등 軍事力增强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日本 못지않게 軍備增强에 발벗고 나선 느낌이다.<표 - 10 참조>

中國 최고실력자 鄧小平이 노령에도 불구하고 1992년 7월 비밀리에 大連을 방문, 북해 함대가 9월에 진수시킬 원자력 잠수함 건조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던 사실은 그의 군사력증강 및 현대화 작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中國의 군비증강계획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鄧小平의 이같은 열성은 中國지도부로 하여금 전력증강에 발벗고 나서게 했음은 물론이다. 中國의 올해 國防豫算規模는 작년보다 12.5%나 증가한 73억 달러로 책정, 상당부분을 최첨단 무기수입 및 개발에 할당하고 있다.[57] 이처럼 늘어난 방위비 증액분은 대부분 러시아로부터 항공모함, 수호이-27기 72대, T72M탱크 4백 40대, 미그31기 등을 구입하는데 투입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中國은 21세기초까지 중형항공모함 2척을 자체 건조해 항공함대를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58]

中國은 자체적으로 무기수출 대국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 80년대 1백억달러의 무기판매 수입을 올린 것으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집계하

---

57) 동아일보, 1993. 5. 17일자.

58) 한겨레신문,1993.5.14일자.(일본 산케이신문 13일 홍콩발 보도인용).

고 있다.[59]

당총서기겸 중앙군사위 주석 강택민 아래에 30명으로 구성된 특별무기판매사정 위원회을 두고 高度軍事科學技術의 역할을 강조해온 것도 中國의 軍備增强에 대한 집념을 잘 대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인구 12억의 中國이 南沙, 尖閣열도 등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 함대를 파견하는 등 아시아 인접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도 심상찮은 東北亞情勢의 한단면이다.

다. 周邊各國의 軍備增强

中國의 國防現代化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역시 臺灣이다.

지난해 프랑스로부터 48억달러어치의 라파예트級 프리깃함 16척을 도입한 것이라든지 올해들어 미라주2000 전투기 200대 및 최첨단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도 따지고보면 中國의 軍備增强으로 나타난 反射的 自衛策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臺灣에 대한 무기판매국은 프랑스만이 아니다. 美國도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열중하고있다. 물론 臺灣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미국은 최근 프리깃함 3척을 臺灣에 임대하는 것으로 시작, 150대의 F16전투기를 臺灣에 판매하였다. 구식인 미제 F-104, F5E 전투기를 주력으로한 臺灣空軍이 프랑스제 신형 미라주 전투기를 구입하는데 대해 美國도 방관하지 않겠다는 식이다.

---

59) 민주이념 발전, 팜프렛92-15호,(1992.11.국방부 정훈관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연간 30억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해온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시아지역을 시장으로 한 무기판매 전략은 대만을 상대로 더욱 강화되리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다.

세계 제6위의 군사강국 印度도 최근 軍備擴充에 열중하여, 지난5년간 국민총생산(GNP)의 3.1%에 해당하는 1백74억달러를 무기수입에 사용하고있다.

여기에다 印度는 지난5월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자체제작한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실험에 성공했다.

英國런던의 國際戰略問題硏究所가 최근 발표한 「91 ~ 92년 세계 전략조사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印度는 대량의 화학무기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어 더욱 주변국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8억인구의 과반수이상이 절대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印度가 군비확장에 열을 올리는데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中國 및 파키스탄과 국경분쟁을 둘러싼 갈등이다. 印度가 지난 62년 中國과 영토분쟁으로 한차례 전쟁을 치르고 적대관계를 유지해오다 30년이 지난 91년말에 가서야 李鵬총리의 뉴델리방문으로 양국관계를 정상화했다. 하지만 전쟁까지 치른 양국의 감정대립은 쉽게 가셔지지 않고 언제 또 옛 적대관계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태이다.

파키스탄과의 관계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카시미르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싼 紛爭으로 현재도 전쟁상태나 다름없는 緊張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밀월관계를 유지해 왔던 蘇聯의 갑작스런 붕괴도 印度의 軍備增强과 무관하지 않다. 그전까지만해도 印度는 매우 싼 가격으로 무기를 蘇聯으로부터 구입했으며 미그21전투기의 엔진과 부품,탱크등은 라이선스

제휴로 제3국에 수출까지 했다.[60] 그러던 것이 구소련이 하루아침에 모든 지원을 차단하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印度의 軍備增强 노력이 불가피해 졌다는 분석이다.

아시아지역 최대무기구입국인 印度는 최근 프랑스로부터 미라주2000전투기 60대와 제트연습기 1백여대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印度는 또 러시아와 미그29전투기와 T72MI전차의 공동생산 협상을 벌이고 있다.

中國·日本·印度·臺灣의 무기구입 경쟁은 물론이고 말레이지아·泰國·싱가포르도 대규모 군사훈련에다 무기구입 경쟁에 나서기는 마찬가지다.

말레이지아 정부는 올들어 영국제 프리킷함 2척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은데 이어 러시아로부터는 미그29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4월에는 미그29전투기 2대가 말레이지아 공군기지에서 시험비행을 실시함으로써 말레이지아의 공군력 增强의지를 반영했다.

泰國 정부도 지난 91년말 美 F-16 18대, C-130 수송기 4대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체코나 영국에서 조기경보기 E2C와 제트연습기 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核開發 의혹으로 미국제 최신무기 도입이 불가능해진 파키스탄은 러시아로부터 수호이27전투기 도입을 통해 공군력 戰力向上을 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영유권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南沙群島問題에서 中國이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든지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의 합동군사훈련실시,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自救策 마련등 모두가 동북아 각국의 군사력 증강 실태를 입증하고 있다.

---

60) 앞의 팜프렛 참고.

결론적으로 모든 國家가 自國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戰略을 세운다고 본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국가는 모든 국가의 威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歷史가 보여 주듯이 우리 周邊國은 우리에게 장·단기적인 威脅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외적인 한국안보의 문제점은 韓半島 周邊은 세계정세변화에 따른 東北亞 地域의 새로운 질서개편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복잡한 양상 즉, 아·태 지역내 軍事力 減縮에도 불구하고 주도적 입지를 지속확보코자 하는 美國, 高度의 경제·기술계에 상응한 정치·군사적 위상을 확보하려는 日本, 경제적 신장과 軍 現代化로 점진적 영향력을 추구하는 中國 그리고 유동적 국내정세 속에서도 기존의 地域的 位相을 유지하려는 러시아등, 주변 4강의 지역정책이 韓半島安保情勢에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런 대외적인 위협요인 이외에 당장 우리에게 직접적인 威脅이 되고 있는 北韓과 이의 지원세력, 그리고 전쟁억제를 위한 노력간에 실질적인 軍事力의 不均衡이 있고, 또한 지리적으로 北韓支援國이 근접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 대한 威脅의 정도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노력은 그들이 말하는 바 이질적인 體制를 전복시키는데 필요한 武力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 사용하는 소위 "人民解放鬪爭", 혹은"人民革命戰爭"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이론상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威脅의 강도는 더욱 높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北韓의 핵무기 개발문제는 앞으로 韓半島 安保環境을 근복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충격적 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國際的 관심을 모았던 國際 原子力機構의 北韓에 대한 핵사찰 검증결과는 北韓이 명확하게 核을 개발중에 있고 이미 핵재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따라서 北韓의 핵무기 개발자체가 7천만 겨레의 운명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한반도 安保環境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는 충격적 위험요소로 잠재하게 되었다.

결국 이같은 北韓의 軍事동향은 金日成體制가 유지되는 한 호전적인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아울러 韓半島情勢에 관련된 北韓의 이중전략이 포기되지 않는한 韓半島 安保環境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고 보겠다.

더욱이 北韓이 내부적 정치·경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못할 경우 軍事的 모험도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감안하면 韓半島 安保실상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을 안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이유는 첫째, 韓國과의 國力격차로 인한 초조감이 北韓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둘째, 빠른 속도로 北韓을 추격하고 있는 韓國의 防衛力 향상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경계하여야 할것은 우리 내부문제에 있어 革命戰爭형태의 전복활동을 들수 있다. 北韓이 추구하고자하는 革命戰爭의 형태는 비정규전부대가 은밀히 투입되어 내부불만 세력을 규합, 비정상적인 방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社會混亂을 가중시키고 테러활동과 政府전복활동을 최대한 진전시켜 戰爭의 형태로 발전시켜 전면 南侵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볼때 우리는 예전처럼 지나지게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강조하는것도 문제지만 현실적인 안보상 위협이 엄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평세월 처럼 방심하고 있다면 더 큰일이다.

국가안전보장의 진정한 의미는 대비와 대응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보와 통일을 우리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의지와 역량을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하겠다.

第 4 章 國家安保의 方向

第 1 節 國內現實의 安定化 對策

1. 政治的 安保와 民主主義

政治的 安保란 政治的 威脅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위협을 제거하여 정치체제와 정부 안정을 보호하는 것이다.

政治的 威脅이란 주권을 침해하여 체제 및 자유와 독립을 약화, 또는 파괴시키거나 국제적 동맹관계를 방해하거나 와해시키는 등 한국가를 고립시키는 외교적측면과 안으로는 反國家·反政府勢力이 連帶하여 사회혼란 및 정부전복을 시도하는 것으로 극렬소요·시위·노사분규·폭동·반란등을 통해 불신조장과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켜 국가권위와 정부의 힘을 무력화 시키는 것등이 있다. 이러한 威脅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政治的 安保이다.[61] 民主主義는 본래 평화를 전제로하여 가능하도록 고안된 정치제도이다. 어떤 학자는 "민주주의는 평화의 아들이며 그 어머니를 떠나서 살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정곡을 찌른 말이라 할것이다.[62] 그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民主主義 절대적 조건임을 인정하고 있다.

平和는 교전상태의 부재 혹은 정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敵對勢力과 軍事的으로 대치하면서 교전상태가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국가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平和가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安保環

---

61) 국방일보, 1993. 5. 4일자.

62) 韓國 國防研究院, 前揭書, P.35.

境이 바로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民主主義는 국제적 환경이 비교적 安定되고 平和스러우며, 國內政治나 社會秩序를 파괴할 우려가 없을때 성공할 수 있는 정치제도이다.

이상의 조건들을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政治指導者 및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선 전국민이 기본적으로 구비해야할 조건이 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民主 發展의 전적인 책임을 특정한 政治集團이나 政府에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認識이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公益보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의 힘을 이용하여 武力을 사용하거나 타협하기 보다는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더욱이 民主主義의 기본가치나 체제를 파괴하려는 소위 左傾勢力들의 활동이 표면화되고 社會의 道德性은 타락되고 社會의 秩序는 더욱 더 문란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의 民主主義 실현에 전적으로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民主主義 실현은 특정한 政治集團이나 政府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전체가 合心해서 한다하더라도 험난하고 머나먼 길이라는 것을 全國民이 인식하고 民主市民으로써 구비해야할 조건을 각자 스스로 갖추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함은 물론 우리의 민주발전 과정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民主政治는 국민 대다수가 지적으로 賢明하고 성격적으로 有德하며 정치적으로 유능하여 공통문제와 공동 이해관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여러가지 조건이 충분히 충족될수 있도록 國民들 스스로가 努力해야 한다. 따라서 民主主義 확립을 위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씨족이나 촌락을 초월한 民主意識이 있어야하고 두번째로 共同業務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야 하며 세번째는 政府의 合法性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와 신념

이 있어야 한다. 네번째로는 국민들이 가지는 人間尊嚴意識,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고 다섯번째는 政治的 價値와 制度에 대한 國民的合意基盤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기 역할 사명에 대한 과대망상을 억제하는 일반화된 學識이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 열거한 내용들이 토양조건으로 모두 충족될때 비로소 民主主義의 싹이 돋아나는 것이다.

2. 經濟的 安保의 重要性과 對策

가. 重要性

經濟的 安保란 밖으로는 經濟封鎖, 經濟協力中斷, 禁輸措置등에 의해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켜 國家의 經濟發展을 封鎖하고 안으로는 과소비, 낭비적인 국민의식 확산과 무분별한 외국상품수입, 노사분규로 인한 기업활동의 마비 등으로 인해 經濟破綻을 불러 일으켜, 國家 經濟體制를 붕괴시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國民生活의 安定과 國家經濟 發展과 國力伸長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우리는 치열한 經濟戰爭時代에 살고 있다. 이럴때는 經濟安保가 國家安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前述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는 불록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先進國들이 시장개방압력과 保護貿易을 강화하고 기술이전을 기피하는등, 자국상품보호에 血眼이 되어 있고, 後發國들은 맹렬한 속도 로 추격, 우리상품의 國際競爭力은 급속도로 떨어져 수출부진과 무역수지 가 악화됨에 따라 製造業의 萎縮 등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우리경

제는 不況의 늪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 對策

우리는 이러한 經濟的 安保危機를 극복하기 위해서 政府, 企業, 家計등 經濟主體가 經濟回復을 위해 技術開發과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며 勤儉, 節約하는 생활자세를 堅持함과 아울러, 지난 시절 經濟發展 原動力을 되새겨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각자가 본분과 분수를 지켜 다음사항들을 깊이 인식하고 國民經濟倫理의 각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1) 經濟의 安定

經濟의 安定은 물가의 안정바람과 함께 생활태도의 安定 즉 들떠있는 국민심리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 국민 각계층은 자기몫을 늘리는데 경쟁적인 努力을 기울여 왔다. 勤勞者들이 자기몫을 늘리기위해 무조건 많은 賃金을 요구하면 우리 經濟는 나빠질 수 밖에 없다. 賃金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올랐는데 앞으로 계속 올라갈경우 生産性을 능가하는 경우가 초래되어 궁극적으로 物價上昇을 가져오고 우리 상품의 國際競爭力 악화는 물론 實質賃金은 오히려 낮아지게 되어 國民經濟는 궁극적으로 損害를 보게된다.

(2) 投資의 振作

投資는 政府가 하는것이 아니라 企業이 하는 것이므로 企業으로 하여금 投資를 열심히 하도록 政府는 政策的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企業은 안일하게 외국으로부터 技術을 도입하여 적당히 生産해서 輸出한다는 자세를 버리고 자기 企業에서 技術을 개발하고 生産性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投資를 늘리도록 하여야 한다.

(3) 健全한 勞使協助關係 정립

勞使關係의 형태는 각국의 社會·文化·政治的 배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구미제국에 있어서의 勞使關係는 대등한 인격적 존재임을 전제로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대립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使用主와 勞動者가 대립적이거나 또는 적대적인 위기에 놓이게되는 예를 많이 볼수 있다.

英國의 경우 강력한 노조활동은 성장의 둔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근로자에 대한 대우의 악화를 불가피하게 하는 등, 일종의 악순환을 거듭함으로써 勞使關係가 선진공업권 경제에서 英國으로 하여금 다른나라보다 뒤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日本의 경우는 전통적 사회제도를 반영하여 勞使關係가 주종 上下關係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勞使間에 정신적 일체감을 기반으로 하는 원만한 協力關係를 수립하여 경제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이상의 어떠한 정형에도 속하지 않으며 그렇다고해서 우리의 여건에 맞는 형태가 완전히 정착된 것도 아니다.

바람직하고 원만한 勞使關係 형성을 위한 과제로써 韓國的인 특수한 요소가 부각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먼저 公共性과 共同體意識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企業의 방침, 운영계획 및 제약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한 모든 기업구성원들에게 공개될수 있는 경로가 마련 된다면 愛社心과 參與意識 및 協同心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勞使關係는 금전적 대우를 비롯한 근로조건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人間關係라는 점에서 볼때 상호간의 信賴와 人間愛를 바탕으로 하는 共同體 意識과 일체감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經濟的 衡平에 입각하여 노동자의 經營 및 收益分配에 대한 참여의 機會도 확대되어야 하며 모든 문제가 대화로써 해결 될수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企業主는 勤勞者를 아끼고 또 勤勞者는 使用主를 따르는 이른바 共同體意識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경제가 국제적 경쟁이나 우세를 유지해야만이 企業主도 勤勞者도 잘살수 있다는 巨視的 觀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풍토조성이 필요하다.

지난 20여년간 급속한 經濟, 社會的 變革過程을 거치는 동안 일반적으로 과욕이나 과도한 열망이 지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를 차분히 가라앉히고 物質보다는 精神的 幸福이나 滿足感을 바탕으로 보람있는 생활을 해야한다는 인식이 뿌리를 내려야 할 시기에 있다 하겠다. 이러한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는한 지속적인 經濟 發展은 어려울 것이다.

(4) 職業 및 職場에 대한 使命感 鼓吹

일을 단지 生業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致富만을 목표로 삼게 될 경우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우선 자기 자신을 혹사하게 되고 자주 불안스러운 생각을 갖게 될것이다. 왜냐하면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를 정도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란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致富를 하기위하여 어떠한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택함으로써 그야말로 目的達成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인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思考方式을 갖게 된다면 社會는 無秩序, 不安, 不信으로 채워지고 善意에 바탕을 둔 경쟁은 발붙일 곳조차 없는 社會가 될것이다. 또한 돈만이 가장 상위의 가치이고 나머지는 이를 위해 동화될 수 있는 수단들로 전락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예로 목적과 수단 그리고 가치들의 본말이 전도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63]

市場經濟體制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기 能力이나 적성에 맞는 職業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주어진 여건에 비추어 자기에게 맞는 職場을 선택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만은 않다. 그러나 職場의 선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자신이 일단 정했으면 그 職場을 적어도 自我實現의 場이라는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일하는데서

---

63) 최근 나타나는 社會各界各層의 各種非理 事件(大學 入學 및 軍將星進級 不正등)들 자체가 社會指導層의 道德的 價値觀의 墮落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社會的 痼弊이다.

보람을 찾을 수 있다면 職場은 그 구체적인 실습장소 라고 할수 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職場에서 과연 어떻게 일을 수행하는가는 곧 자기 인생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라고 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선 되어야하며 賃金이나 地位등은 努力의 결과이며 더욱 훌륭한 일을 하기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

社會라는 共同組織體도 유기체의 세포처럼 그 구성요소인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제위치에서 자기가 맡은바 소임을 다할때 비로소 秩序가 維持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된다. 職場내 專門化 및 分業의 原理에 따라 각 개인간의 유기체 관계가 원활히 維持될 때 비로소 발전과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나의 연장인 職場이 共同生活의 장이라는 信念아래 각자 맡은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찾고자 努力할때 가능한 것이다.

어느 분야, 어느 직종이건 간에 저마다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바로 職業의 本質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職業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있어야할 자리에 마땅히 해야할 職分을 주기위해 존재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각자가 자기 職業의 所重함을 認識하고 강렬한 책임감을 느낄때 긍지와 보람을 갖게되며 직업에 대한 긍지와 職場에 대한 애착 그리고 일에 대한 使命感도 가질수 있다.

따라서 職業에 대한 使命感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職業意識, 바로 天職意識에서 출발하게 된다.

3. 社會 · 文化的 代案

이제 新民主主義社會와 産業資本主義社會의 秩序를 成熟시켜 나아가야 할 韓國社會는 '힘의 文化'를 극복하고 새로운 文化的 代案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와 같은 文化的 代案을 '힘에 의한 지배' 및 '힘과 힘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할수 있는 文化가 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따라서 힘의 지배와 힘의 갈등을 극복할수있는 文化的 代案은 무엇보다도 '理性의 文化'[64]가 적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理性의 文化'는 合理主義(rationalism)를 지향하는 文化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성 가운데서도 도구적 合理性보다는 비판적 이성과 창조적 이성에 기초하는 合理性을 지향하는 合理主義가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우리民族의 正統性을 바탕으로 民族의 自矜心을 높여 祖國의 未來에 꿈과 비전을 갖도록 國民의 士氣를 북돋우고 倫理와 道德性을 回復하여 자기의 본분과 분수를 지키며 國民和合과 共同運命體 意識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

64) 社會的統合의 論理로써 人間의 理性은 合理性을 追究하고 힘을 排除하며 衝動과 本能 感情과 慾望을 스스로 統制하는 能力을 말한다.

第 2 節　專門職業 軍人의 倫理意識 提高

1. 軍人의 職業意識

전체적으로 그물처럼 얽혀진 산업화되고 관료화된 조직들이 모든 기능을 대신하게 되면서 철저한 사회적 분화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다양한 종류의 직업으로 분화 되었다. 직업 변화의 또다른 측면은 많은 직업이 專門職化되었고 이 專門職은 사회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Daniel Bell이 後期 産業社會를 知識社會라 부르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문적, 과학적 지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창출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前産業社會에 있어서의 土地, 資産, 그리고 産業社會에 있어서의 資本과 技術에 맞먹는 중요성을 後期産業社會에 있어서의 專門的 知識에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군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흔히 장차전을 정보전으로 예상한다든가 장교직을 전문직으로 간주한다든가 하는 일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65] 당연히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함께 직업윤리와 직업에 대한 가치관에도 변화가 있어 왔다.

軍職業 位相에 관한 관련 학자들의 논의를 집약[66]하면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召命職으로서의 군 모델은 보다나은 선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는 조직의 가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 公組職主義的 特性을

---

65) 國防部 政訓官室, 軍隊倫理, (國防部, 1991), P.58.

66) C.MOSKOS의 공조직주의/직업주의 모델, J.P.TOMAS의 4가지 전략 경력 모델, G.CAFORIO의 내적전문화 모델 ; 韓國國防研究院, 前揭書, PP.73 ~ 75.참고.

갖는 것이다. 自己犧牲, 맡은 임무에 대한 철저한 獻身등의 개념으로 특성지워지는 召命職의 개념은 社會로부터의 尊敬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데, 24시간 근무, 자신과 가족의 잦은 이동, 軍紀와 軍法에 대한 엄격한 服從, 辭職,罷業, 근무조건에 대한 협상 불가 등 위험하고 불리한 근무여건은 軍組織에 대한 소명감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처럼 軍은 傳統的으로 公組織主義的인 특성 즉 召命職으로써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금전이나 물질이 아닌 溫情主義的 보상체계의 발달도 그 하나이다.

반면에 직업으로써의 軍 개념은 물질적보상이 지배적인 것으로 작용하는 市場原理에 의해 정당화된다. 現代 産業社會에서는 조직원들이 적정한 봉급수준과 근무여건을 協商하고 결정하는데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약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주어지는 권리이다. 이 모델에서는 조직의 목적이나 업무보다는 구성원 個個人의 利益에 優先權이 주어진다. 이러한 직업주의 모델은 산업화되고 분업화된 현대사회에서 군을 여타의 직업과 등가물로 인식할때 나타나는 속성이다.

이에 비하여 專門職으로서의 軍은 專門的인 經驗, 예컨데 長期的이고 集中的인 學問的 訓練에 의해 公式的으로 인정 받은 技術등의 개념을 함축한다. 장교들을 위한 각종 전투병과학교, 참모대학등에서 실시되는 교육과 훈련등은 軍의 專門性을 提高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이 된다. 軍의 專門性 개념은 정보화사회, 고도기술 사회라 일컬어지는 후기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개념이다.[67]

---

67) 國防部 政訓官室, 前揭書, P.61.

갖는 것이다. 自己犧牲, 맡은 임무에 대한 철저한 獻身등의 개념으로 특성지워지는 召命職의 개념은 社會로부터의 尊敬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데, 24시간 근무, 자신과 가족의 잦은 이동, 軍紀와 軍法에 대한 엄격한 服從, 辭職,罷業, 근무조건에 대한 협상 불가 등 위험하고 불리한 근무여건은 軍組織에 대한 소명감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처럼 軍은 傳統的으로 公組織主義的인 특성 즉 召命職으로써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금전이나 물질이 아닌 溫情主義的 보상체계의 발달도 그 하나이다.

반면에 직업으로써의 軍 개념은 물질적보상이 지배적인 것으로 작용하는 市場原理에 의해 정당화된다. 現代 産業社會에서는 조직원들이 적정한 봉급수준과 근무여건을 協商하고 결정하는데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약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주어지는 권리이다. 이 모델에서는 조직의 목적이나 업무보다는 구성원 個個人의 利益에 優先權이 주어진다. 이러한 직업주의 모델은 산업화되고 분업화된 현대사회에서 군을 여타의 직업과 등가물로 인식할때 나타나는 속성이다.

이에 비하여 專門職으로서의 軍은 專門的인 經驗, 예컨데 長期的이고 集中的인 學問的 訓練에 의해 公式的으로 인정 받은 技術등의 개념을 함축한다. 장교들을 위한 각종 전투병과학교, 참모대학등에서 실시되는 교육과 훈련등은 軍의 專門性을 提高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이 된다. 軍의 專門性 개념은 정보화사회, 고도기술 사회라 일컬어지는 후기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개념이다.[67]

---

67) 國防部 政訓官室, 前揭書, P.61.

시대적 산물이기도한 이상의 3가지 개념은 軍이라는 職業이 가지고 있는 本質的 屬性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어떤 시각에 비중을 두고 군을 볼것인가 하는데 따라 職業軍人이 자신이나 軍組織 그리고 軍에 기대하는 國民의 바램이 달라질수 있으며 軍人이 지녀야할 德目이나 倫理가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2. 軍의 傳統的 倫理意識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社會 指導層자리는 거의 文官 차지였고 武官보다는 文官階級의 文化가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같은 儒敎文化圈에 있으면서도 사무라이라는 武士階級文化를 형성하고 있는 日本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우리의 指導層文化는 한마디로 君子文化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君子文化의 구체적 양상은 다음 몇가지로 집약 될 수 있다.

먼저 계층관계를 上·下, 尊·卑, 貴·賤으로 구분하여 人間을 評價하였는데 이는 禮節이 존중되고 敬語가 發達되었다는 사실로 잘 알수 있다.

상사는 特別한 恩典을 베풀어 部下를 데리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儒敎의 道德은 엘리트의 權威와 지위를 옹호하기 위해 孝와 忠을 당연한것으로 要求하고 德이나 情을 중요시했다.

두번째 특징은 權力과 特權意識은 너무나 徹底하여 庶民大衆은 감히 엘리트를 상대로 투쟁할 엄두도 못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上司에 대해서는 죄를 짓지않으면서도 연달아 "죄송합니다."를 連發하는 言動이 심하며 이는 上司 앞에서 罪責感과 같은 것을 느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셋째로 韓國人의 水平的 關係는 예로 부터 朋友有信이라고하여 믿음과 사랑을 根幹으로하며 "친구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公私를 혼동하면서까지 친구에게 희생적으로 대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로 한국의 양반은 체면을 財産 또는 生命보다도 重視한다는 점이다. 흔히 하는 말 중 "체면을 損傷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侮辱을 당하면 얼마나 內的葛藤이 생길 것인가를 含蓄하고 있다.

한국인은 集團이나 共同體의 분위기에 同化되지 않으면 안된다. 집단이나 共同體와의 갈등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것은 역사적으로 權力을 잡기위해 他人을 除去할때 反國家的, 反民族的, 反社會的 行爲를한 逆賊이라고 謀陷하는 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 즉 民衆은 國王에게 어린이는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연소자는 년장자에게 服從하는 것만이 葛藤을 除去하고 社會秩序를 維持하는 不可缺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지도층 문화의 윤리적 기본바탕은 情이라고 압축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사회는 물론 軍의 지도층이 되는 將校社會에서도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어 왔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의리·정에 의해 유지 발전되었고 특권이나 권위에 대해 制限的이고 合理的으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온몸으로 반응 하였다.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친구와의 사이에서는 믿음과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朋友有信의 태도를 지녔으며 상사의 意見과도 相反되는 建議를 함부로 함으로써 상사에게 侮辱感을 줄 수 있다는 心理的 부담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상사와의 不可避한 갈등도 이를 正正堂堂하게 解消하려하기 보다는 回避하려고하며 따라서 健全한 建議도 때때로 葛藤을 피하기위해 留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모든 성향은 韓國的 人間관계 유지에 있어 정서적이고 심정적인 요인이 되는 情이 얼마나 必須的인 要素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3. 軍人의 倫理

軍人服務規律에는 將校, 準士官, 下士官의 責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將校 및 準士官은 군대의 기간으로써 항상 풍부한 知識과 德性을 쌓고 心身의 鍛鍊에 힘쓰며 처사를 公明正大히하고 法規를 遵守하여 率先垂範함으로써 부하로부터 信賴와 尊敬을 받아 逆境에 처하여서도 올바른 判斷과 措置를 할수 있는 氣品과 威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下士官은 軍의 초급간부로써 兵과 生活을 같이하므로 任務遂行에 있어서 자신이 항상 命令과 法規를 率先遵守하여 兵에게 模範을 보이고 또 그들의 신상을 파악하여 善導에 노력하여야하며 특히 將校와 兵간의 橋梁的 役割을 하여야 한다[68]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德目들이 지향하고 있는 幹部象은 한마디로 專門的인 知識과 識見을 갖추고 率先垂範하는 자세로 任務에 임하여 部下들로부터 尊敬을 받는 사람을 상정하는 것으로 우리 軍의 初級, 高級幹部들이 知的인 面이나 人格的인 面에서 부하들의 模範이 되는 카리스마스적 인물이 되기를

---

68) 國軍兵營生活 規定 2장 3조 2,3,4항 ②將校의 責務 ③準士官의 責務 ④下士官의 責務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앞에서 분석한바 軍을 보는 여러가지 職業觀에서도 자연스럽게 도출될수 있는 것으로서 專門職으로서의 軍,召命으로서의 軍, 그리고 職業으로서의 軍을 연상할때 기대할 수 있는 職業倫理이기도 하다. 최근의 政勢變化에 따른 우리의 安保環境이 變化하고 있지만 구태의연한 軍의 傳統的 價値및 倫理들은 軍組織의 特殊性 및 軍의 職業倫理가 다른 職業倫理와 구분되는 관계로 인하여 변하지 않고 있다.

그 傳統的 價値觀과 倫理는 軍人, 특히 將校는 자신의 職責에 상응하는 知識과 技術 그리고 識見을 갖추어야 하며 軍이라는 職業에 대한 召命感, 天職意識을 바탕으로 倫理意識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軍의 倫理的, 傳統的 價値觀의 기본적 바탕은 바로 '情'을 바탕으로한 人和團結과 率先垂範的 行動에 있다. 이것은 軍隊에 적응되는 不文律과 같은 것이고 軍의 幹部들이 지녀야 할 최대의 德目이다. 다음으로 勇氣를 들수 있는데 이는 만용이 아닌 진정한 용기로써 물리적용기(physical courage)와 도덕적용기(moral courage)로 나눌수 있는데 이 두 요소는 특성간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함께 작용한다.

다음은 正直이다. 논어에 眞實無形實라는 말로 대신 설명할수 있는바 軍人은 근무시 正直해야 하며 命令의 下達이나 傳達, 報告, 通報에는 虛僞, 歪曲, 誇張해서는 안된다.[69] 또한 言, 知, 信, 行이 一致되는 價値觀 및 道德的인 倫理觀을 堅持하여야 한다.[70]

---

69) 軍人服務規律, 제8조.

70) 박두호, "軍人倫理提高로 新軍 精神文化 定着", (「國防」,1993.3.國防部), P.99.

軍의 리더들은 이러한 要素를 바탕으로 倫理的 價値觀을 信條化하여 평상시부터 내면화 내지 체질화하고 자기자신을 객관화하여 자기수정과 개발을 할수 있기 위해서는 간부의 리더쉽 원칙에 대한 아이디얼 타입(예컨대 勇氣, 端正한 外貌, 果斷性, 信賴性, 持久力, 熱誠, 謙遜, 유머, 獨創力, 誠實性, 判斷力, 正義感, 知識, 忠誠心, 犧牲精神)등에 대한 價値判斷力이 필요하다.

第4章 結 論

20세기를 마감하고 大望의 21세기를 맞이하는 향후 몇년동안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어 우리 國家와 民族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展望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國家發展을 保障하기위해서는 과거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더 절대적인 國家의 安全 保障 장치가 필요하다.

고도로 情報化된 現代 産業社會에서의 國家安保란 軍事力에 의한 軍事的 安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政治外交的安保,經濟的安保,社會心理와 文化的安保등 國民의 총역량을 결집한 總體的安保 槪念으로 파악 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槪念하의 각종 각양의 威脅에 대한 總體的이고 복합적인 대책수립이 國家安保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금의 國際情勢는 미,소 대립의 동,서 冷戰이 終熄되는 등, 화해무드 조성에도 불구하고 東北亞 地域 情勢는 개방을 포기하고 폐쇄 고립정책을 추구하는 北韓과 韓半島 周邊國들의 軍備增强으로 인하여 여전히 韓國의 安保를 威脅하고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韓國安保의 중핵을 담당하고 있는 美國은 자국의 經濟沈滯에 따른 軍備縮小를 단행하여, 國防費를 삭감하고 韓國에 주둔중인 병력의 일부를 철수시키는 등 韓國의 安保狀況을 빌미로 하여 經濟的 問題인 通商摩擦을 야기, 이를 관철시키려고 策動하고 있고 나아가 아·태지역 안보를 서서히 日本에게 양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日本은 막강한 經濟力과 우수한 技術資源을 바탕으로 東北亞地域 에 대한 主導權을 확보하기 위해 血眼이 되어있다.

中國 또한 현재 진행중인 東北亞 地域情勢 變化에 따른 힘의 空白狀態를 이용 地域 覇權掌握에 몰두하고 이를 위해서는 軍事的 行動도 不辭하고 있으며, 社會主義 現代化란 旗幟하에 經濟發展을 위해 努力하고있다.

그리고 가장 强力한 威脅勢力이었던 蘇聯은 消滅 되었지만 새로 등장한 獨立國家聯合은 舊 蘇聯의 國際的인 位置를 維持하기 위해 우세한 軍事力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직, 간적적인 影響力을 行事하려 들것으로 豫想된다. 아울러 우리의 安保에 직접적인 威脅을 가하고 있는 北韓도 자신의 强力한 支援勢力인 蘇聯의 消滅에따라 自衛權確保와 自體生存權 保障이라는 미명하에 核武器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開發 배치하였고 휴전선 전역에 걸쳐 兵力의 3분의2 이상을 배치하는등 韓半島 赤化統一 이라는 對南 戰略戰術에 조금도 변함없이 韓國의 安保를 威脅하고 있다.

이러한 對外的인 威脅要因 이외에도 우리 社會의 급격한 經濟成長에 따른 分配의 不均衡, 再分配 政策의 誤謬 등이 계층간의 葛藤을 深化시켜 왔고, 이러한 것들은 北韓의 指令을 받고 政府顚覆 活動을 하고있는 左傾暴力革命勢力들의 民主化 구호가 되어 社會不滿勢力을 규합 同調勢力으로 체제내부에 殘存하여 韓國의 安保를 威脅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安保에 대한 모든 不安要因을 하루 속히 제거하고 21세기를 향한 國家發展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民主化와 改革의 물결속에서 터져나오는 社會的 不滿要因을 시급히 치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민적인 共感帶 形成속에 현재 진행중인 改革作業의 지속적 推進으로 모든 不條理의 根源을 봉쇄하고 不正과 관련된 社會 지도층인사들의 처벌이 聖域없이 法에 의해 과감하게 執行되어져야 할것이며, 아울러 軍의 位相과 관련하여 軍의 名譽를 실추한 일부 前,現職 軍關聯 高

位人事들과 과도한 정치 지향성으로 사회전반에 물의를 일으킨 일부 軍人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審判이 내려져야 하며, 아울러 軍 內部에 만연된 不正腐敗를 척결하고 倫理的 價値觀을 재정립시켜 軍의 位相이 제자리를 올바로 찾을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두가지 사항이 전제 조건이 되어 汎國民的인 團合과 아울러 軍은 國民의 信賴를 回復하여야 하며 각 安保 組織體間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시키고 總力安保態勢 完備에 萬全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戰爭을 事前에 抑制하고 安定된 政治體制를 유지하면서 持續的인 經濟發展 政策에 竝行하여 社會 각 階層, 地域間의 均衡發展을 摸索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40여년동안 괄목할만한 經濟成長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國民의 모든 역량을 大企業, 都市爲主의 經濟發展에 집중시켜 상대적으로 中小企業과 農村은 낙후하였으며 도시 영세민등, 사회 계층간에서도 不遇階層이 나타났고 사회적 형평성 또한 무시되어 왔다. 따라서 政府는 지난 40여년동안 이렇게 쌓여온 所得 分配構造를 개선하고 아울러 여러가지 不均衡, 不衡平을 시정하면서 새로운 民主秩序를 확립시키기 위한 제도적 改革을 통한 經濟政策을 실시하고 安定과 競爭力 提高를 통한 대책을 계속적으로 推進함으로써 修正, 補完作業으로 이를 해결시켜야 할것이고, 각 企業, 勤勞者, 國民들이 자세를 가다듬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우리 經濟의 앞길을 탄탄하게 다져주어야 할것이다.

셋째로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힘이 지배하는 각종요소를 排除하고 우리 전통 生活樣式인 勤儉,節約,貯蓄의 정신을 존중하여 이를 적극 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理性의 文化'가 사회전반에 뿌리내려 合理적인 사회

傳統樣式이 배양되어야 하며,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 각계층 전반에 倫理와 道德性을 회복하여 자기 본분과 분수를 지키는 國民和合으로 民族共同體 意識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國際情勢의 급격한 변화추세에 맞추어 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따라 우리의 安保槪念 역시 전방위 안보체제를 확립키 위한 總體的인 安保態勢를 재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韓國의 경우 유형적인 安保能力이 결코 약한것은 아니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國力을 바탕으로한 戰爭 遂行能力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弱小國이 되어 왔다. 따라서 現代戰에 대비한 軍事力 增强이 우리 安保에 必須的要所이다. 그렇지만 유형적인 戰力의 增强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무한한 무형전력인 安保意識 강화가 韓國安保의 現在와 未來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安保意識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軍의 倫理的價値觀이 再定立되어 軍이 國家安保의 精神的 修鍊場으로써의 役割을 다하기 위해서 그 使命을 깊이 인식하고 건강한 軍隊의 모습을 國民에게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民·軍간 信賴回復은 물론 汎 國民的 安保意識 강화에 대한 共感帶를 形成, 發展시켜 國家 安全保障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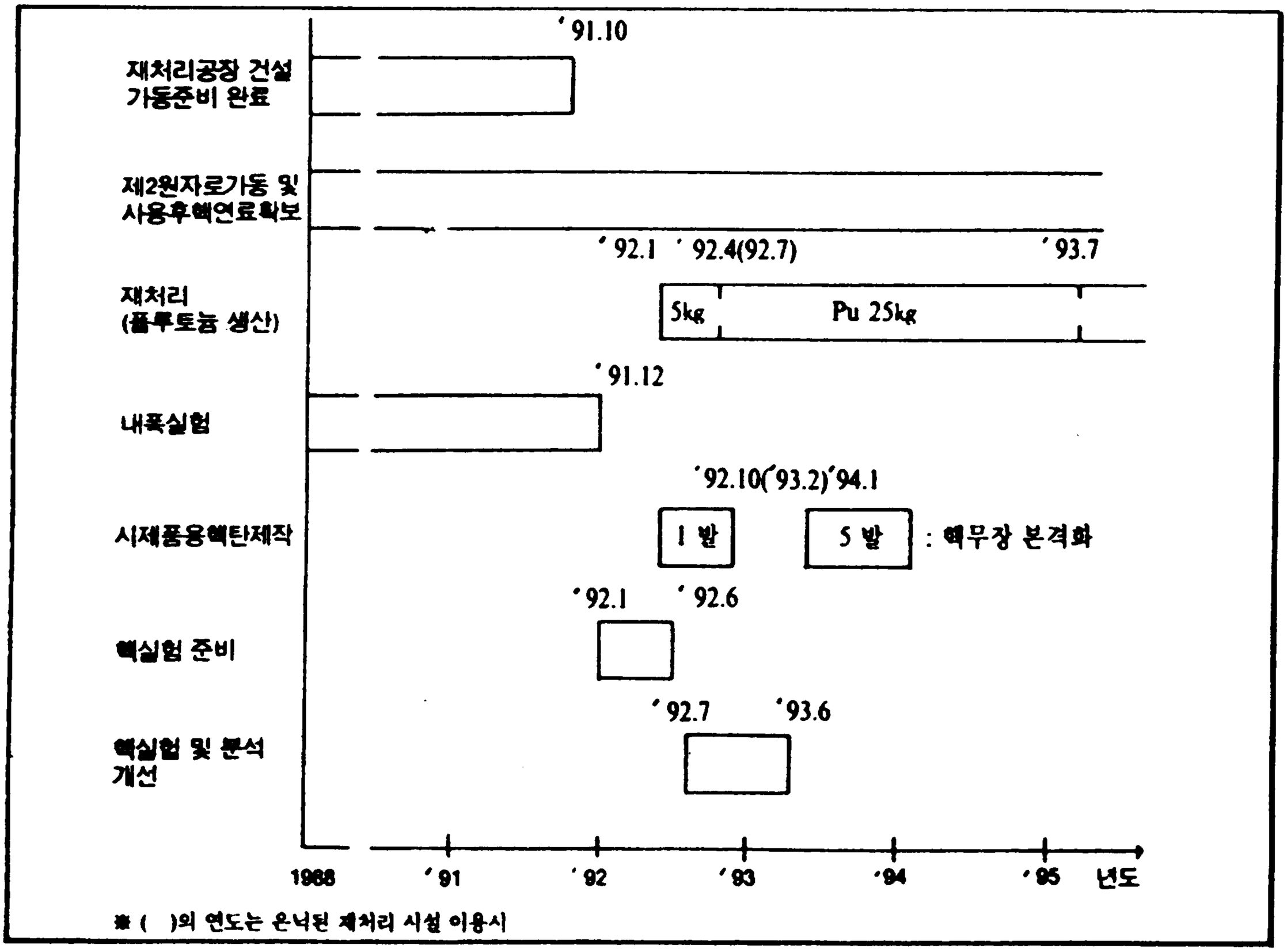
참 고 자 료

< 표 - 1 > 동북아지역 군사력 현황

국 가	병력(명)	전차(대)	함정(척)	항공기(대)
미 국	110,600	204	50	595
러시아	750,000	22,300	678	2,382
중 국	3,200,000	10,000	1,358	7,130
일 본	240,106	1,210	211	1,167

(출처 : 국방 1992. 11)

< 표 - 2 >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



(출처 : 북한연구. 1992)

< 표 - 3 > 미·소 총전력 비교

구 분		미 국	소 련
총 전 력		203만명	340만명
핵	전 략 (ICBM 및 SLBM)	1,640기	2,334기
지상군	병 력	73.2만명	140만명
	전 차	16,851대	55,400대
	장 갑 차	32,004대	78,000대
	헬 기	8,458대	4,500대
	지상포 (견인, 자주, 다련장)	6,098문	64,200문
해군	항 공 모 함	13(핵모 : 5)척	5척
	잠수함 전 략	34척	60척
	잠수함 전 술	86척	221척
	수. 상 함 / 지 원 함	644척	1,908척
공군	전 술 기 / 전 폭 기	4,090대	4,370대
	지 원 기	2,733대	5,569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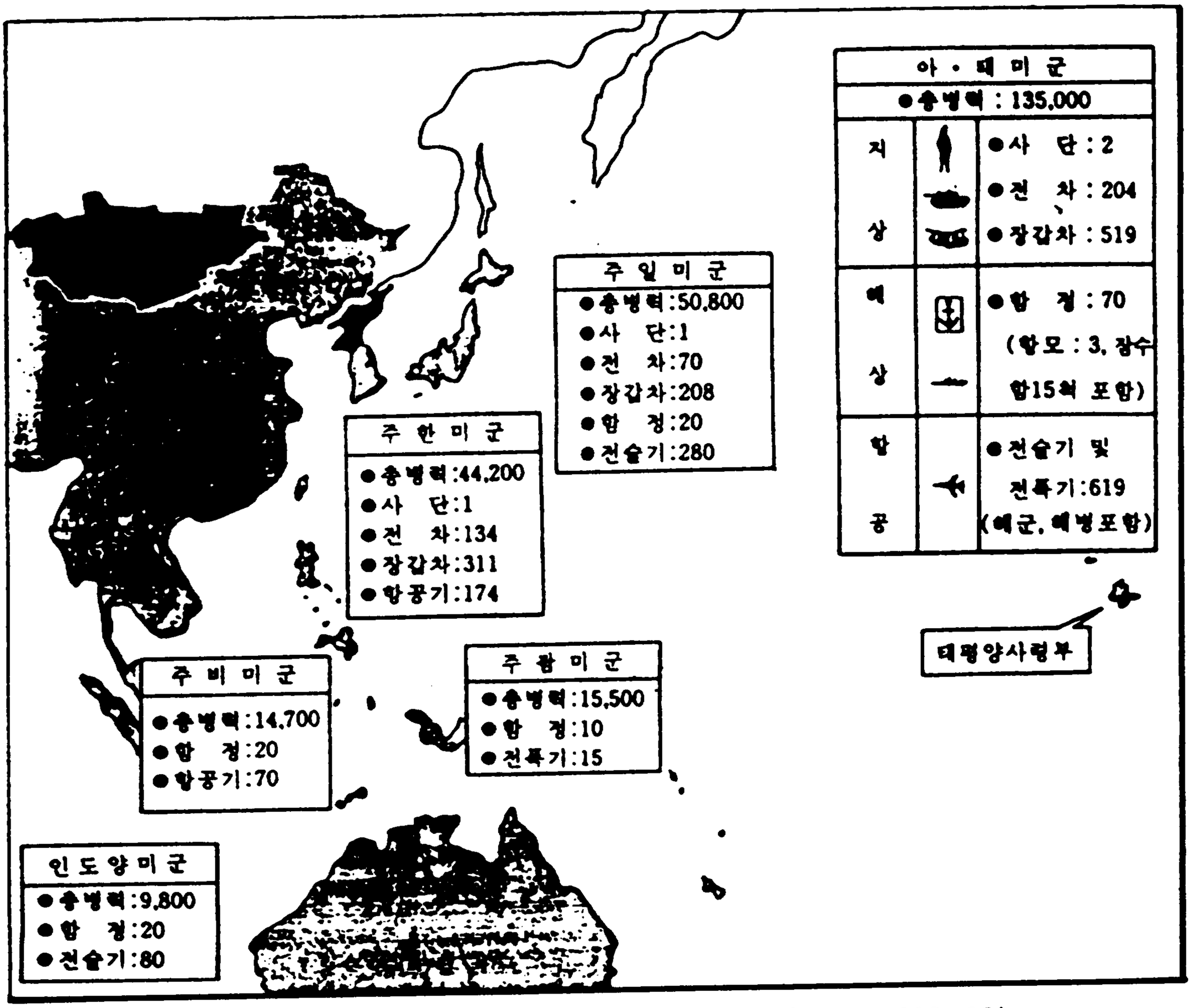
자료 : 「군사력 현황 1991~1992」(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1.10)
「소련 군사력 1991」(미 국방정보본부, 1991.9)

< 표 - 4 > 미·소 핵전력 비교

구 분	미 국	소 련
대륙간탄도탄 (ICBM)	총 1,000기 • 미니트맨-Ⅱ : 450 • 미니트맨-Ⅲ : 500 • PEACE KEEPER : 50	총 1,388기 • SS-11-17 : 390 • SS-18 : 308 • SS-19 : 300 • SS-25 : 300 • SS-24 : 90
잠수함발사 탄도탄 (SLBM)	총 640기 • 포세이돈 : 192 • 트라이던트Ⅰ/Ⅱ : 432 • 기타 : 16	총 946기 • SS-N-5-18 • SS-N-23 : 112 • SS-N-20 : 120
장거리폭격기	총 277대 • B-22H : 84 • B-52G : 103 • B-1B : 90	총 1,771대 • TU-95 : 162 • TU-160 : 15
중거리폭격기	24대(FB-Ⅲ)	410(백파이어 : 190)
총 탄 두 수	13,398	11,641

자료 :「군사력 균형. 1991~92」(런던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1.10)
「소련 군사력 1991」(미국정보본부, 1991.9)

< 표 - 5 > 미국의 아·태지역 전력



자 료 : 「군사력 현황 1990-1991」(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0. 10)

「소련 군사력 1990」 (미 국방정보본부, 1990. 9)

< 표 - 6 > 소련의 극동지역 군사력 현황

극 동 전 구	
사 단 : 49	포 병 화 기 : 12,500
총 병 력 : 560,000	전투/전폭기 : 1,746
전 차 : 9,700	탄도미사일 : 841
장 갑 차 : 16,400	

태 평 양 함 대	
항 모 : 2	잠 수 함 : 98
주요수상전투함 : 63	해 군 항 공 기 : 339
기 타 전 투 함 : 100	해군보병사단 : 1
보 조 함 : 353	(사단규모)

자료 : 「군사력 균형 1991~1992」(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1. 10)

< 표 - 7 > 亞 . 太 주요국 육군병력순위
(단위 : 만명)

국 가	병 력
① 중 국	230
② 舊 소 련	140
③ 인 도	110
④ 북 한	100
⑤ 베 트 남	90
⑥ 미 국	732
⑦ 한 국	65
⑧ 파키스탄	50
⑨ 대 만	27
⑩ 미 얀 마	25.9
⑪ 인도네시아	21.2
⑫ 태 국	19
⑬ 일 본	15.6
⑭ 말레이지아	10.5

(출처 : 밀리터리 밸런스 1991-1992년)

< 표 - 8 > 亞太주요국 무기구입비
(단위 : 억달러)

인 도	169.89
일 본	109.71
아프가니스탄	57.42
북 한	49.00
한 국	31.25
파 키 스 탄	26.93
대 만	24.27
태 국	23.25
인도네시아	17.50
싱 가 포 르	10.69
중 국	4.14

(출처 SIPRI 연감 : 92년판)

< 표 - 9 > 일본의 방위력 현황

구 분		보 유	비 고
총 병 력		246,544명	정원 : 273,801
육상자위대	병 력	156,100명	정원 : 180,000
	사 단	13개	전차사단 : 1, 보병사단 : 12
	전 차	1,200대	신형전차로 대체중
	항공기	427대	고정익 : 16, 헬기 : 411
해상자위대	병 력	43,967명	정원 : 46,085
	함 대	14개	기동함대 : 4, 지방함대 : 10
	함 정	165척	호위함 : 58, 잠수함 : 14, 기타 : 93
	항공기	177대	고정익 : 87, 헬기 : 90
항공자위대	병 력	46,317명	정원 : 47,556
	비행대	18개	전투 : 13, 기타 : 5
	항공기	510대	전투기 : 330, 기타 : 180

자료 : 「방위백서 1991」(일본 방위청 1991.7)

< 표 - 10 > 중국의 군사력 현황

구 분		보 유	비 고
총 병 력		약 303만명	
전략핵전력	병 력	90,000명	
	ICBM	8기	2DF(동풍)-5 6DF-4
	IRBM	60기	DF-3
지상군	병 력	2,300,000명	
	사 단	100개	
	전 차	10,000대	T-59/-62/-63/-69/-79/-80
	장 갑 차	2,800대	531형, 85형 BTR-40형
	야 포	14,500문	100㎜~152㎜
해군	병 력	260,000명	해병대, 해군항공부대 포함
	잠 수 함	92척	핵추진 5, 재래식 87
	구축함/프리기트함	18/32척	
	기 타 수 상 함	1,905척	
공군	병 력	470,000명	
	폭 격 기	470대	H-5, H-6
	전 투 기	약 4,000대	J-5/-6/-7/-8
	대 지 공 격 기	500대	Q-5
	기 타 항 공 기	3,130대	정찰기, 수송기, 헬기 등

자료 :「군사력균형 1991~1992」(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1.10)

< 표 - 11 > 남북한 군사력 현황

구 분			한 국			북 한	
병 력			육군	54만명	65.5만명 *	88.2만명	101만명 * *
			해군	6만명		4.6만명	
			공군	5.5만명		8.2만명	
지상군	부대	군단	11			16	
		사단	49 * * *			49	
		여단	11			95	
	장비	전차	1,650			3,700	
		장갑차	1,700			2,500	
		야포	4,400			9,800	
해군	전투함		180척			445척	
	지원함		50척			270척	
	잠수함					25척	
공군	전술기		520대			550대	
	지원기		190대			480대	
	헬 기		580대			290대	

* 방위병 미포함, 해군병력에 해병부대 병력포함

* * 육군에 편제된 해병부대 육군병력에 포함

* * * 해병사단 포함

(출처 : 국방 1992. 11)

〈參考文獻〉

1. 國內文獻

1)國防大學院 安保問題 研究所,「國防研究」, 1988, 제31권 1,2호.

2)_____,「國防研究」, 1992, 제35권 1,2호.

3)_____,「安保學術論集」, 1991,제2집 1,2호.

4)_____,「安保學術論集」, 1992,제3집 1,2호.

5) 國防部 政訓局,「國軍精神教育教本」, 1981.

6) 國防部 教育政訓官室,「軍隊倫理」, 國防部, 1992.

7) _____,「安保環境 변화에 따른 軍幹部의 役活」, 國防部, 1991.

8) _____,「밝은 내일을 위한 軍幹部의 작은 실천」, 國防部, 1992

9) 權 永 植 외6명,「國防地理」, 서울:박영사,1981.

10) 金 玉 烈,"北方政策에 따른 南北韓 國際政治關係變化", 淑大統一問題研究所, 1991.

11) 金 點 坤,「韓國戰爭과 勞動黨 戰略」, 서울:박영사,1981.

12) 金 朱 煥,「美國의 世界戰略과 韓國戰爭」,서울:도서출판청사,1989.

13) 金 昌 洙,"冷戰解消와 軍縮을 위한 分析과 對案",「역사비평」 학술단체협의회 제5회 심포지움, 역사 비평사, 1992.

14) 金 學 俊,「韓國問題와 國際政治」, 서울:박영사,1979.

15) 金 弘 彬, "國防政策의 優先順位", 國民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1991.

16) 大陸研究所, "日本의 大陸政策, 그역사적 展開樣相", 「月刊展望」, 1992.8.

17)_____, "韓·中修交와 東北亞 情勢變化", 「月刊展望」1992. 10.

18)_____, "東北亞 각국 頻上外交의 歷史的 意義", 「月刊展望」, 1992.11.

19) 羅 炳 善, "韓國의 安保政策 方向에 관한 研究", 漢陽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0.

20) 文 道 彬, "自主國防 態勢完備는 軍의 必須的명제", 「國防」, 1992. 10.

21) 閔 丙 天, 「韓國 安保論」, 서울:대왕사, 1981.

22) 朴 斗 鎬, "軍人倫理 提高로 新軍精神文化定着", 「國防」, 1993. 3.

23) 朴 俊 鴻, 「韓半島 平和와 安保」, 서울:박영사, 1978.

24) 배 찬 복, "학원가 인공기 왜 등장하는가", 「새물결」, 1992.여름호.

25) 서울大學校 社會科學 碩士팀, 「國民倫理學原論」, 서울:민족문화사, 1987.

26) 송 복, 「韓國社會의 葛藤構造」, 서울:현대문학, 1990.

27)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韓國의 市民倫理」, 제2회 社會倫理심포지움, 1991.

28) 양 희 원, 「軍隊文化의 뿌리」, 서울:을지서적, 1988.

29) 劉 元 東 외13명, 「現代思潮와 韓國社會」, 서울:형설출판사, 1990.

30) 李 東 熙, "未來指向的 軍發展方向", 「國防」, 1992.10.

31) 李在昊.徐錫鳳공역, 「專門職業軍」, 서울:도서출판 韓元, 1989.

32) 李 相 禹, "弱小國의 防衛能力과 고슴도치理論", 「국제정치학논총」, 한국 국제정치학회편, 1996.

33) _____, 「韓國의 安保環境」, 서울:서향각, 1977.

34) 李 善 浩, 「國家 安保戰略論」, 서울:청우당, 1990.

35) _____, 「國防行政論」, 서울:고려원, 1986.

36) _____, 「情報社會와 軍事知識」, 서울:정우당, 1991.

37) 李 元 馥, "人類의 化學戰 恐怖는 사라질 것인가", 「國防」, 1993.3.

38) 李 在 田, "國軍創設의 意義와 時代的 使命", 「國防」, 1992.10.

39) 이한우역, 「道德的 人間과 非道德的社會」, 서울:문예출판사, 1992.

40) 林明芳역, 「君主論」, 서울:삼성출판사, 1976.

41) 정 운 종, "韓·中修交의 未來와 새로운 東北亞 情勢變化", 韓國國際政治學會편, 1976.

42) 지 만 원, 「軍縮時代 韓國軍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서울:도서출판전원, 1992.

43)_____, 「70만정영체 韓國軍 어디로 가야하나」, 서울:김영사, 1991.

44) 崔 甲 錫, "自衛力 확보만이 民族生存權 保障", 「國防」, 1992. 10.

45) 崔 慶 落 외2명, 「國家安全保障序論」, 서울:법문사, 1989.

46) 최 종 회, 「葛藤의 平和論」, 서울:나남, 1987.

47) 韓國 國民倫理學會, 「國民倫理」, 서울:형설출판사, 1988.

48) 韓國 國防研究院, 「精神教育教材」, 1991.

49) 韓國 勝共研究院, 「國際共産主義 戰略」, 서울:대우문화사, 1983.

50) 韓國 社會研究會, "世界秩序 再編과 韓國政治", 「資本主義 體制와 韓國社會」, 學術團體協議會 제4회 심포지움, 도서출판 한울, 1991.

51) 韓國 精神文化研究院, 「國民精神研究」, 1983.

52) _____, 「國民精神教育教材에 대한 分析的研究」, 1984.

53) 韓國 政治研究會, "世界政治, 軍事秩序 再編과 韓半島", 「資本主義 體制와 韓國社會」, 도서출판 한울, 1991.

54) 한 영 춘 외3명, 「韓·中時代의 開幕과 韓國의 未來」, 서울:자유공론사, 1993.

55) 現代社會研究所, 「2000년대를 향한 韓國人의 상」, 1992.

2. 國外文獻

1) Annette.B.Fos, *Small State Diplemacy*, Notre Dame Unversty, 1972.

2) Hottman.S., *Gullivers Traval*, N.Y:Mc Graw Hill, 1968.

3) Hackett.John., *The Profession of arms*, London Kig's College, 1962.

4) Josephs.S.B.Jr., *North Korean Special Forces*, London. Jane's Publishing Company. Ltd, 1988.

5) Lider.J., *Military Theory : Concept,Structure,Problems*, London, Gower Publishing, 1983.

6) Machiavelli, *The Prince*, Modern Library Edition

7) Mokinder.H.,"The Round World and the Winning of the Peace", *Foregn Affairs*, July, 1943.

8) Singer.M.R, *Weak States in a World of Powers*, N.Y:The Free Press, 1971.

9) Spykmen.N.J., *The Geography of Peace*, 1944.

10)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1985

3. 기 타

1) 國 民 日 報

2) 國 防 日 報

3) 東 亞 日 報

4) 서 울 신 문

5) 世 界 日 報

6) 제 일 경 제 신 문

7) 朝 鮮 日 報

8) 韓 國 日 報

9) 한 겨 레 신 문

10) 安保問題研究所, 「統一路」, 1992. 10 ~ 1993. 4.

11) 統 一 院, 「民主統一論」, 1988 ~ 1993.

12) _____, 「統一問題研究」, 1992.봄 ~ 1993. 봄.

13) 國際問題研究所, 「國際問題」, 1992.3. ~ 1993. 4

14) 北韓研究所, 「月刊北韓」, 1992.2.~ 1993. 4

15) 自由社, 「自由」, 1991.10 ~ 1993.4.

16) 國防部, 「國防」, 1991.10 ~ 1993.4.

ABSTRACT

A Study on the Situation Surrounding Korean peninsular and Security of Korea

- Concentrating on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and our recognition of the reality -

Kim Jea G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 Sung University

Recently, the international affairs are changing rapidly. The unbalance of power is expected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is very likely to raise a struggle for the regional

hegemony. The role of international security organiz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our security system needed to confront with changes in regional situation is still not active.

Let's sum up the situation in Asia-Pacific region. The CIS has appeared after the breakdown of the USSR, and withdrawls of the Russia army have occurred from Kamran Bay of Vietnam and US army from Phillipine, respectively. Considering those situations, stable bipolar system as before is hard to expect. Japan who already possessed firm economic status is ready for securing hegemony in the region, actively working politically and militarily and passing the PKO bill China seems to carry out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policy. However, China is speculated to have more concern in the modernization of military equipment than disarmament in line with the traditional view that war should be prepared in peace time. As explained above, Asian nations are going against recent international affairs initiated by the breakdown of the cold war system. Furthermore, North Korea is hurrying for the nuclear armament.

All these things are working as a threat to our security.

At this critical period, our internal situation is not stable enough. Social problems such as unequal distribution as a byproduct of the rapid economic growth, mistakes in redistribution policy, and conflicts between classes, have prevailed. In the political and cultural aspects, social discontent such as alienated classes and regional conflicts has sprung up in the midst of democratization stream and revolution after recent establishment of civilian government. Filthness and corruption are widely spread in all social areas as well as in military since moral view on value has not established. Dangerous thought that communist threat no longer exists because of breakdown of communist regime in Eastern Europe and the accomplishment of the North policy is getting support.

However, the fact that radicalists who claim the withdrawl of the US Army stationed in South Korea and pursuit of revolution by violance still exist will harm internal security, along with the disintegrating factors described of above. A few people claim the reduction of armament and argue the increase distrust between the people and the army due to military corruption which is a token of disapprerance in security consciousness.

Therefore, taking a step to self-protection to further consolidate our security system has become an urgent task. First thing is to convert consciousness to fasten the loosened view on security. The responsibilty of the army should be regarded as a mental-training place where the people who served in the army Moreover, it should be repositioned itself as a place which trains the youth who will be leader of ROK in the near future.